

대한민국 국론 통일 지금이 기회다

지난 달부터 북한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까지도 고강도의 핵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비록 말로써 하는 협박이기는 하지만, 마치 전쟁이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말로써 하는 협박 및 공갈과 더불어 일부의 방송사 및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교란하고 개성공단에의出境을 금지하는 등 실질적인 테러를 감행하고 있다. 북한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도발을 자행하는 것일까.

필자의 管見에 의하면, 거기에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한다.

아는 바와 같이 북한의 기본적인 국정방향은 1998년에 결정된 선군정치이다. 선군정치는 다른 이름으로 強盛大國이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은 첫째 정치대국, 둘째 군사대국, 셋째 경제대국으로 구성되어있다. 정치대국은 주체사상의 실현을 통한 인민의 사상적 노예화, 군사대국은 핵과 미사일의 개발, 경제대국은 경제발전을 각각 목표로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강성대국의 실현목표 연도는 2012년이였다. 2012년은 김일성 탄신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선군정치는 본래 실현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정치대국 및 군사대국과 경제대국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대국과 군사대국은 鎖國下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데 대하여 경제대국은 改革開放하에서만 달성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군정치를 구성하는 각 목표의 실현조건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북한은 하는 수 없이 경제대국의 건설을 희생하고 정치대국과 군사대국의 건설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주체사상에 의한 인민의 사상적 노예화와 핵무기 및 미사일

의 개발에 매진했던 것이다. 북한 자신의 주장에 의하면, 인민의 노예화와 핵무기 및 미사일의 개발에는 일단 성공했다고 한다. 그들은 헌법을 개정해서까지 스스로가 핵무기의 보유국임을 명시했다. 보통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짓거리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의 보유국임

특별기고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부터 경제원조를 끌어내는 것이다. 현재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위협과 공갈은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위에서 관련제국이라고 했지만, 북한이 주된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국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하에서

선군정치와는 도저히 양립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공갈과 협박은 보수정권의 대북정책을 종전 진보정권의 대북정책으로 되돌려놓으려는 것을 기본적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북한의 목표는 이미 실현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종래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이 이제 새빨간 거짓말임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진보진영의 일각에서는 종래의 대북정책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자는 자살행위이다.

더 나아가 최근의 공갈과 협박은 남남갈등을 또 다른 목표로 했다. 그러나 북한의 공갈과 협박은 한국사회를 동요시키려는커녕 오히려 종북주의자들과 친북주의자들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세계의 일류국가가 되었고 또 우리의 유일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아무리 공갈과 협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없다.

한국은 지금 국론통일을 위한 매우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기도 하다. 지금까지 진보진영에서 ‘분단사학’이니 ‘분단체제론’이니 ‘우리민족끼리’이니 하면서 마치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고 대한민국은 ‘본래 태어나서는 안될 나라’인 것처럼 떠들어왔는데,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가가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이야말로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일한 조국이 된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중심의 한국현대사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교육하는 일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국문]

북한 핵 협박에 중국태도 변화 종북 세력 주장 허구도 드러나

을 주장하자마자 관련국가들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우선 중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은 북한의 핵무기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유엔은 북한의 제3차핵실험에 대하여 종전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관련국들은 종래의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도 줄이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변화는 뼈 아픈 것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은 선군정치에 부분적으로 성공하자마자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상황에 빠졌다. 북한이 이러한 곤경으로부터 탈출하려면, 본래 그들이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이 의도했던 목표란 관련제국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로

북한의 선군정치에 동조한 일이 있었다. 2000년의 6·15공동선언과 2007년의 10·4공동선언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 선언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전제로 하는 햇볕정책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완전한 국민기만이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1998년에 국정의 기본노선을 선군정치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2008년 한국에 보수정권이 들어선 것은 북한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뼈 아픈 타격이었다. 이명박정권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이 바로 그것이다. 박근혜정부는 한 발짝 더 나아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진보정권하의 무조건적 대북지원정책이 보수정권하의 상대주의적 대북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한국의 상대주의적 대북정책은 북한의

원로언론인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회장 홍원기) 6·25 참전언론인 일동은 지난 4월 11일 작금의 안보위기상황에 대해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전쟁위험을 강력히 규탄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한편 연일 미사일 발사위협 사이버테러 등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을 일촉즉발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대한언론인회 6·25 참전언론인 일동은 북한의 이 같은 핵전쟁위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전면 포기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책

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안보리 결의 2087호를 위반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우리는 이 같은 북한의 핵 전쟁위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위협과 3차 핵실험은 김정은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미국과 한국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위험한 도박이다. 유엔은 보다 강력하고도 다각적인 대북제재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방지해서는 안 되며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무모한 핵 도발과 사이버 테러를 효과적 실질적으로 방어 할 수 있도록 전시작전권 이양취소 등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과 한반도 안보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강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국문]

2013년 4월 11일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
6·25 참전언론인 일동

북한은 핵전쟁 위협 중단하라

대한언론인회 6·25참전 언론인 성명

대북 심리전 강화 압박수위 높여라

전선에 설치된 국군 확성기 방송을 통하여 ‘내일 황해남도 남부에 비가 오겠습니다.’는 예보가 제공된다. 예보한 시간이 되면 예보한 장소에 어김없이 비가 내린다. 북한 병사들과 주민은 남한의 기상관측이 정확한 데 놀라면서도 작전과 생활에 활용한다.

남북군사회담을 통하여 북한이 그토록 목을 매었던 것은 이와 같은 대북방송을 중지시키는 것이었다. 2004년 6월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이 요구가 관철되자 그것으로 남북군사회담은 끝이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전방에 배치된 전광판과 확성기를 이용하여 대북방송을 재개하면 북한의 낭패는 공황수준일 것이다. 특히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이를 관철시킨 정찰총국장 김영철의 낭패가 가장 클 것이다.

민주주의의 강점 활용할 때

2002년 시작된 남북군사실무회담은 경의선·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는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오게 될 달러를 벌자는 것이었다. 또 한 가지는 서해에서의 북방한계선을 무실화 시키기 위한 공동어로구역 설정이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이 지상의 군사분계선과 같이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을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서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북방한계선은 유지되고 있다.

소련을 해체하고 냉전을 종식시킨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몰락시킨 외교 경제 심리전 공세를 시작할 때 밑바탕이 된 신념은 ‘민주주의 체제가 전제주의 체제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분명히 약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점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자유민주주의 최대의 강점은 진실이요 자유다. 그렇다. 우리도 이 강점을 활용하여 북한과 싸워야 한다.

말의 테러 되돌려 주어야

우리로서는 진실이 최대의 자산이다. 북한은 지금 핵 미사일, 화생무기, 특수전, 사이버전 분야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대북심리전은 유일하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분야다. 우리가 가진 이 귀중한 자산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허점이다. 김대중 노무현 등 좌파정부에서 국가 및 군사 심리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그러려니 하자.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를 복구, 강화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개탄스럽다.

대북 심리전은 주로 전방지역의 군부대에서 전광판과 확성기를 활용한다. 강화 김포 지역에서 풍선을 보내는 방법이 주민들의 반대로 어렵다면 서해에 배치된 해군 함정을 이용하면 된다. 북한은 이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하는데 이를 공격해온다면 김관진 장관이 지침을 준 그대로 도발원점과 지원세력, 지휘부까지도 타격하면 된다. 나아가 조선

중앙방송 등 북한의 매체에서 보여준 김관진 국방부장관에 대한 ‘말의 테러’를 그대로 정확히 돌려주어야 한다. 이는 자위권 차원의 정당한 조치다.

북한의 악독하고 저열한 선전공세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진리는 똑같

특별기고



김국현

·예비역 육군소장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미국의 자유 아시아 방송과도 적극 제휴하여야 한다.

평화는 절대 구걸로, 유화정책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오직 힘으로 지켜낼 의지와 능력이 있을 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은 역사를 통하여 검증된 진리이다.

체임벌린의 유화정책은 유럽에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수천만이 죽는 역사상 최악의 재앙-2차

서는 오시라크 원자로 폭격 같은 대범한 공격도 불사하는 의지와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미친 사람과 게임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소년시절 서방에서 생활한 김정은은 카우보이를 원용한 치킨 게임의 논리와 방법을 익히 알고 있다. 남한 사람들이 서른도 안 되는 어린애가 무슨 대단한 통치능력이 있겠냐고 알잡아 보는 것을 오히려 역이용하여 ‘이 어린애가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게 만든다. 그러나 김정은은 김일성의 손자요 김정일의 아들이다. 어느 누구 못지 않은 권력의지와 운용능력을 생래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다.

김정은은 ‘애송이’ 아니다

그가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보좌하던 노련한 보좌진들-고모부 장성택, 선전담당비서 김기남, 대남담당비서 김양건, 핵협상에서 미국을 농락해온 강석주 김계남, 천안함 폭침을 계획하고 실행한 정찰총국장 김영철 등 노련한 부하들의 보좌를 받을 수 있다. 이들 집단의 보좌를 받는 김정은은 결코 애송이가 아니다.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대결과 대화를 혼합해야 한다. 대북심리전 재개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미국은 소련과 대탕트를 추구하면서도 외교전, 경제전, 심리전에서 다양하고 전면적인 공세를 취하였다. 북한 주민들에게 생활에 유용한 일기예보를 전달하는 것이 무슨 도발인가. 북한군 젊은 전사들이 전 세계가 열광하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듣도록 하는 데 트집을 잡을 수 없다. 2004년 전광판과 확성기를 중단할 당시와 현재의 남북 상황은 전혀 같지 않다. 박왕자 사건에 이은 금강산 우리 관광재난 몰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정전협정 백지화, 남북기본합의서 파기 등이 원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당연히 가장 유력한 대북심리전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

대북전략 소극성 벗어나야

지금 우리 정부와 군, 국민은 좌파정권 하에서 자기도 모르게 길들여진 대북전략의 사고와 행동의 소극성, 피동성을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다. 전광판과 확성기를 보수하여 언제라도 대북심리전을 재개할 준비를 착착 갖춰 우리의 요구에 북한이 쫓아오도록 하는 협상용으로 최대한 활용하면서 일단 반응을 볼 것이다. 그 다음은 오로지 북한에 달려 있다. 談談打打는 공산주의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싸우면서도 대화하고, 대화하면서도 총칼을 버려야 한다. 이를 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는 것이 국가전략의 기본이다. [4]

전방지역 전광판-확성기 활용 저열한 선전공세 못하게 해야

이 적용되어야 한다. 상대가 욕을 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군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만이 아니고 KBS도 활용해야 한다.

세계대전을 불러 왔다. 오늘날 50배가 넘는 아랍인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이 사면초가 가운데서도 독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라크의 핵 보유를 막기 위해

한국전 순직 종군기자 추도식

본회 6·25참전 언론인등 30여명 참석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는 지난 4월 26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 통일공원내 한국전 순직 종군기자 추념비 앞에서 한국전쟁당시 전장을 누비며 기자의 소임을 다하다 순직한 종군기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거행했다.

대한언론인회, 유엔군사령부, 한국전 종군기자동우회, 파주시, 유엔한국참전국협회 후원으로 거행된 이날 추도식에는 대한언론인회 흥원기 회장, 제재형 고문, 6·25참전언론인회 박기병 회장, 지갑중 고문, 한영섭 감사, 황대연 부회장, 지용우 간사, 안현태, 이종기 회우를 비롯, 송효빈



추도식을 마친 뒤 기념 촬영.

감사, 김성배 정기정 부회장, 김영호 정운종 이사, 문명호 주필, 정성진 회우등 30여명이 참석했다. [4]

‘한미 연합사’ 해체는 미래를 죽인다

근래 연합사 해체 문제가 새삼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북한의 위협은 갈수록 높아지고 이제는 핵까지 앞세우고 있는데 국방부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억제력인 연합사 해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니 당연한 일이다.

그래도 ‘한·미동맹은 튼튼할 것’이라고 강변(強辯)하지만 연합사는 한·미동맹의 핵심연결 고리다. 실제로 햇볕정책 10년 한·미관계를 되돌아보면 연합사가 없었더라면 한·미동맹이 어찌되었을지 아찔한 생각이 든다. 2007년 연합사 벨 사령관을 만찬에 초대했다.

“연합사 해체해도 주한미군 정말 줄이지 않을 거지?” 다잡았더니 “그러면서 한국은 지상군을 40%씩이나 줄이느냐?” 식탁만 탕탕 내리칠 뿐, 끝내 답이 없었다. 연합사 없는 한·미동맹은 점차 한 장의 종이쪽지처럼 형해화하고 주한 미군조차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어쨌지 1992년 수빅 만 미군을 쫓아 낸 필리핀이 스카보로섬까지 들이닥친 중국군에 농락당하는 꼴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아 보인다.

북한도발 억제에 가장 효과적

실은 한·미동맹이 칼집이라면 오히려 연합사가 그 칼날이다. 당장 억제는 원래 심리적인 것이어서 북한 전면도발과 특히 핵위험을 억제하는 데는 연합사가 서울에 존재하는 것 이상의 방법이 없다. 이른바 미국 핵우산 효과도 연합사가 해체되면 크게 훼손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미국은 태평양 건너 너무 멀리 있는 반면 중국은 바로 압록강 건너에 있는데도 양국의 영향력이 대략 전략적 균형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도, 한국에는 주한미군 특히 연합사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사가 해체 된 이후에도 ‘전략적 균형 상태’를 유지 할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연합사가 없었어도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도 우리 사회가 그렇게 의연할 수 있었을 것이며, 전면 핵전쟁을 하겠다고 펄펄 뛰는 최근 북한의 공갈 협박 속에서도 국경이 없는 세계의 자본이 한국사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인가? 북한의 공갈 협박 한마디 한마디 마다 우리 사회가 흔들리고 경제가 마비되지 않았을까?

무엇보다도 장차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엄청난 정치, 경제, 군사적 소요를 감당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밖에 없고, 연합사는 그런 지원을 받아들이기 양호한 통로이자 관리 기구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물론 설사 통일이 된 후라도 육일승전하는 중국의 기세 속에서 자유대한이 살아남는데, 오늘 연합사 체제보다 더 확실한 수단이 있거나 할 것인가? 결국 연합사 체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우리 국방력으로 쉽게 대체 할 수가 없는 한국의 생존과 미래 발전의 핵심적 안전장치인 것이다.

특히 바로 지금 북한 김씨 왕조는 대를 이은 폭정으로 체제유지의 한계상황에서 허덕이면서, 핵과 군사도발 간접

침략 등으로 우리가 두 손 들고 항복하지 않으려면 자유통일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외통수 길로 내몰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래서 향후 5년 길어야 10년이 미래 100년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전략은 일단 북한 핵 위협과 다양한 도발에 대

특별기고



김희상

·예비역 육군중장
·정치학 박사
·한국 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한국 생존에 핵심적인 안전장치 사령관 한국장성 교체도 안될일

처 및 억제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연합사 체제’를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위에 자유통일을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동맹적 요소 더욱 강화할 필요

이렇게 보면 지금은 ‘국가생존과 자유통일’을 비롯해서 우리가 한·미동맹에 기대하는 동맹적 소요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클 수밖에 없는 때다. 그 반면, 미국의 여건은 ‘G2 중국이 흔들리고 있는 미국의 리더십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고 그런데도 미국은 ‘경제난으로 병력과 국방비를 대폭 감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매우 어려운 때다. 그래도 한·미동맹이 과연 우리의 동맹적 소요를 뒷받침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더욱이 원래 ‘동맹관계’란 ‘공통의 이익과 이해를 위한 상호지원 관계’인데 우리는 이라크, 아프간 전쟁 등에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많이 다르다. 2004년 9월 부시 대통령, 2011년 퍼트레이어스 아프간 주둔 사령관도 이라크, 아프간 참전 파트너들을 거론 할 때 한국은 거명하지 않았었다.

특히 군사동맹관계란 ‘상호간의 깊은 이해와 돈독한 우의가 있어야 그 기능이 사는 특별한 관계’다.

그런데 우리는 주한미군의 교통사고 하나에도 수많은 국민이 촛불을 켜들거나 미국 대통령의 사과까지 받아내면서도 주한 미군의 훈련장까지 찾아가서 성조기를 불태웠고 광우병이니 뭉니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의 자존심을 할퀴고 상처를 주었다.

지금도 “미국은 GDP 4~5%를 국방비로 투자하는데 한국은 2.7%도 흔들린다”고 섭섭해 하고 “주한미군은 감축하지 말라면서 한국은 줄이려 든다”고 어이없어하는 미국 군인이나 전문가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동맹의 우의가 어떻

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이 한미동맹을 긍정적인 관계라고 믿기나 할 것인가?

실제로 오늘 미국의 눈은 많이 냉정해졌다. 2012년 12월 미 국가정보위원회(NIC)의 보고서 ‘글로벌 트렌드 2030’에서는 “한반도가 통일되어 북한 위협이 사라지면 한국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들 것이고

한강의 기적을 뒷받침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계 5027 무력화 될수도

현실적으로도 그렇다. 연합사가 한·미동맹의 핵심연결 고리가 되고 햇볕정책 10년 동안 한·미동맹체제의 유지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었던 것도 연합사령관이 미군 대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유사시 대규모 증원전력이 계획되고 미국의 즉각적 개입과 지원이 가능한 직계 5027도 미국 장성이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가능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미니연합사’처럼 “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되 단지 사령관만 한국인으로 바꾼다”는 등의 말들은 사실상 연합사 해체를 호도 하는 것일 뿐 한국인 사령관의 연합사는 이미 오늘의 ‘연합사’는 아닌 것이다.

때마침 최근 전 미 NSC 대량파괴무기 조정관 게리 새모어(Gary Samore)와 성김 주한 미 대사가 연이어 ‘연합사 해체 재연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전 연합사령관 벨(B. B. Bell)대장은 한국의 지인들에게 ‘연합사 해체를 반대하는 서한’까지 보내고 있다.

사실 한·미간에는 아직도 ‘21세기 한·미전략동맹’ 구축 차원에서도 서로 주고 받을 만한 상호 지원요소가 적지 않고, 한·미를 이어 줄 ‘중요한 공통의 안보 이슈’도 하나 둘이 아닌데다가, 북한의 핵이 현실화 되어가니 미국으로서도 새삼 신중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RAND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미 의회의 입장은 다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지만 그렇더라도 우리에게서는 더할 수 없는 기회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한다. 이렇게 ‘재검토의 운’을 미국 측 전 현직 고위층들이 먼저 띄워 주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 새삼 거절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도대체 굳이 해체하려 해도 때가 있는 법이지 하필 북한의 핵이 우리 머리 위를 덮치려 하고, 한반도의 미래 운명을 가름할 이런 때, 튼튼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연합사 체제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필요 할 바로 이런 때에 해체하려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국가 간의 약속’이라서? 그러나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다. 철딱서니 없는 무책임한 약속에 구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설마 북한에게 마음 놓고 도발을 계속하라는 격려라도 하고 싶은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2년 후니까...’하는 만심인가? 그러나 나라가 죽고 사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당장 눈앞의 일이 아니라고 1년, 2년 우물쭈물 어설프게 넘기고 말면 자칫 내일 한반도 자유통일에 저주가 되고, 우리 아들딸들이 살아남기도 어려운 함정을 파놓는 결과가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을 것이다. [국문]

그것이 미래 동북아 정세의 변수”라고 내다보았다.

최근 어느 미 정보관계자는 필자에게 “이제 유사시 한국이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줄 것으로 믿는 미국인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의 한·미동맹은 사상유례없이 튼튼하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그 말은 햇볕정책 10년 동안에도 양국의 정부 관계자들에게서 흔히 들을 수 있었던 말이다.

그 때문인지 한·미간에는 ‘동맹 강화’라는 말도 수시로 반복하고 있다. 그렇다고 오늘 그 말을 의심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말로는 백번 약속해봐야 약속은 약속일뿐이다.

약속만으로 연합사라는 현실체의 영향력을 대체 할 수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더욱 더 지금은 애소를 하건 공갈을 치건 어떻게든 ‘연합사 해체’가 아니라 오히려 연합사로 연결된 오늘의 ‘구조적인 동맹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한반도 자유통일을 내다보는 대 전략적 큰 차원에서 한·미가 함께 총체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동맹체제를 재정비해야 할 때인 것이다.

연합사 해체에 대한 우려가 하도 커지니까 그렇다면 사령관만 한국인으로 바꾸자는 말이 나온다. 얼핏 ‘썰렁고 알먹기’ 일 듯 싶지만 그러나 오늘 연합사의 억제력은 한마디로 ‘미 4성 장군이 직접 한국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다’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2007년 찰스 캠벨 주한미군사령관은 필자에게 “한국은 미군 대장이 연합사 사령관을 맡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너무 모른다”고 하던데 사실 기본적으로 연합사는 ‘튼튼한 한·미동맹과 그 동맹이 세계 최강 미국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상징체’요 그 상징성이 지난 수십 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고

“종북이 뭐가 문제냐?” 고 하는 바보들

從北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이번에는 ‘우리민족끼리(우민끼)’ 회원 가입. ‘우민끼’는 북한의 對南선전용 웹사이트로,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 중 네이버·네이트·다음 등 국내 포털사이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한 회원이 2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공안당국이 ‘우민끼’ 회원들의 利敵性 여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성과도 나오고 있다.

1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지역 사무국장 A(39)씨 등 3명이 ‘우민끼’에 가입한 뒤 북한의 주장을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그대로 옮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從北보다 從美가 더 문제”라는 국회의원에 이어 ‘우민끼’ 회원 가입 명단까지 공개되는 상황! 그러나 從北에 대한 상당수 국민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둔감하다. “從北이 어디 있냐?” 또는 “있어도 큰 문제가 되겠냐?” 등 다양하다. 좌편향 언론이 만들어 낸 오도된 여론의 실상이 이렇다.

從北세력은 누구인가? 정의하자면, 북한정권의 주의·주장을 追從하는 세력을 말한다. 이들은 북한이 분단 이후 남한을 상대로 주장해온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연방제통일과 같은 소위 對南노선을 그대로 따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반국가적일 뿐 아니라 700만 한민족 학살의 원흉인 김일성 왕조를 따른다는 점에서 패륜적이다. 자유민주주의 통일 이후의 한국의 강대국 진입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어느 누구보다 퇴보적·수구적 세력이다.

“從北이 어디 있냐?” “있어도 큰 문

제가 되겠냐?”라는 순진한 질문에 대한 심각한 대답은 從北세력이 더 이상 陰地의 在野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제도권 내 뿌리를 내렸고 선동능력과 동원능력, 여론주도력을 갖춘 강력한 권력 집단이 되었다. 從北세력은 거짓을 진실로 만들고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어 대중을 광장의 촛불로 이

특별기고



김성욱

·(사)한국자유연합대표
·리버티 헤럴드 대표

대다수 국민 “별일 있겠나” 둔감 거짓 선동 여론주도 못하게 해야

끌어 낼 수 있는 능력도 갖췄다. 2008년 광우병 난동과 2010년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에 대한 왜곡 거짓 선동은 대표적 사례다. 이들은 문화권력(culture power)을 갖춘 한국 사회 가장 강한 파워집단 중 하나이다.

금배지를 단 從北세력이 안보와 관련된 자료를 손에 넣으면 며칠 후 똑같은 서류가 김정은 집무실 테이블 위에 놓이게 될 것이다. 가령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증강 계획, 서북 도서방위사령부 전력 증강 상황,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개념 계획 5029’의 내용이 북한에 넘어가 버리면 나라 안보는 밑동부터 흔들릴 것이다. 韓美정보 당국이

고 선동한다. 천안함·연평도를 도발한 건 北인데 얻어맞은 피해자인 한국도 나쁘다는 兩非論을 동원한다. 封鎖와 抑止의 원칙적 대응을 말하는 이들을 ‘전쟁세력’으로 몰아간다.

북한이 공갈을 치고 남한 내 從北세력이 ‘전쟁이 싫으면 북한과 協商을 하고 支援을 하라’고 선동해가면, 사회 전체는 좌클릭 한다.

北核과 從北이 연합하고 여기에 국지전·사이버 테러 등 적절한 긴장을 만들어 분위기를 띄워 가면 한국은 북한의 요구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쌀을 달라면 쌀을 주며, 북한이 원치 않는 인물을 요직에 앉히지 못하며 한미동맹은 形骸化돼갈 것이

다.

2015년 12월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北核 + 從北 + 긴장(국지전·사이버 테러 등)이라는 세 개의 축이 돌아가면서 大選이 치러지면 ‘한반도 평화’를 외치는 從北 내지 從北과 연대한 좌파가 정권을 잡게 된다. 2012년이 汎대한민국 세력의 辛勝이었다면, 5년 뒤 대선에서 從北 내지 從北·좌파 집권은 거의 필연이 된다. 北核의 개량과 한미연합사 해체라는 두 개의 안전판이 사라진 후인 탓이다.

이후 벌어질 시나리오는 재앙에 가깝다. 자유민주주의는 인민(민중)민주주의로, 자본주의는 사회주의(反시장 사회)로, 한미동맹은 반미주의로, 한국의 國體는 근본적으로 변질될 것이다. 從北세력 주장처럼 평화체제 실현과 주한미군 철수, 6·15-10·4 연방제 통일마저 현실화되면 1948년 대한민국 체제는 막을 내린다. 從北·좌파가 모델로 제시해온 쿠바나 베네수엘라 같은 황당한 미래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북한과 대치한 한국의 南美式 몰락은 남미보다 끔찍할 수밖에 없다.

갈 데까지 가버린 나라의 현실을 보고도 “從北이 무슨 문제냐?”는 질문은 愚問이 된다. 평화세력으로 가장한 從北세력에 속아버리면 절망적이다.

75년 사라진 월남과 잘 나가다 몰락한 아르헨티나가 우리의 미래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한국은 난세로 가고 있다. 그러나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만들어 내는 게 인간이다.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거친 시대일 뿐, 지금 한국은 위기와 기회를 앞두고 있다.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4\]](#)

나는 일본의 NHK TV를 자주 보는 편이다.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이 텔레비전을 통해 참으로 기이한 장면을 눈으로 직접 보고는 참으로 놀랐다.

그것은 일본의 하원 격인 중의원이 해산을 결의하는 장면이었다. 의장이 팔막한 천황의 ‘해산’ 명령서 낭독을 끝내자, 의석에서는 누구의 선창도 없이 일제히 ‘만세 삼창’이 일어났다.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대단히 즐겁다는 듯이 이 기이한 행사에 동참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박수를 치고 만세 삼창을 한 것일까, 또 중의원 해산권은 현직 수상의 전권 사항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황의 해산 명령서 낭독은 왜 필요했던가. 일본과 일본의 정치에 관한 약간의 지식을 가졌다는 나로서도 전혀 이해가 안되는 광경이었다. 이 충격 때문에 나는 내가 젊었을 때 읽었던 일본에서는 꽤 유명한 한 논설을 다시 찾아볼 생각이 났다. 그것은 ‘타락론’이라는 제목의 것이었다.

‘반년동안에 세상은 변했다. 천황폐하의 방패를 자처하는 나는 천황의 슬하에서 웃으며 죽겠고 결코 뒤돌아보지는 않으리. 이와같이 젊은이들은 꽃으

로 졌지만 같은 그들이 살아남아 암시장의 장사꾼이 되었다. 백년의 목숨을 원하지는 않으리, 언젠가는 천황의 방패로 사라질 그대와 맺어지고 이렇게 용감하게 배필을 보낸 아낙들도— 반년의 세월이 지나자 부군의 위패 앞에 엎드리는 일도 사무적인 행사로 변하고 얼마 안 가 죽은 낭군과는 다른 새 모습을 가슴에 품어 안을 날이 멀지 않았다. 인간이 변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것이고, 변한 것은 세상의 거죽뿐이다.’

타락론은 이렇게 시작된다. 내 번역이 시원찮아 그렇지 이것은 실로 명문장이었다. 이 논설은, 우리로 치면 해방 다음해인 1946 4월 당시 마흔살이었던 괴

일본 ‘천황’은 ‘일왕’인가



박현태

·분회 회우
·전 국회의원
·전 KBS사장

짜 문인 사카구치 양고(1906~55)가 한 잡지에 발표한 작품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쓰고 있다. ‘이 전쟁을 일으킨 자는 누구인가. 마지막 수상을 한 도조’인가 군부인가.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일본을 관통하는 거대한 생물, 역사의 어쩔수 없는 의지였다고 할 수도 있다. 일본 사람들은 역사 앞에서는 그저 운명에 유순한

어린이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전쟁의 근원이었던 무사도를 안출했는가. 이것도 역시 역사의 독창이거나 또는 후각이었을 것이다. 무사도는 인성과 본능에 대한 금지조항이기 때문에 비인간적 반인성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그 인성이나 본능에 대한 통찰

의 결과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적으로 인간적인 것이다.

내가 특히 이 논설을 여태껏 기억하는 이유는 곧 이어 전개되고 있는 천황의 본질론 때문이었다.

나는 천황제에 관해서도 극히 일본적인(따라서 혹은 독창적인)정치적 작품성을 본다. 천황제는 천황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천황은 때로는 스스로 음모를 일으킨 일이 있지만 대체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며 그런 음모는 언제나 성공한 일이 없고, 귀양을 가거나, 스스로 깊은 산골짜기에 숨거나 하는 결과를 낳았고 그래서 결국은 언제나 정치적 이유에 의하여 다른 무리들로부터 그 존립을 인정받아 왔던 것이다. 요컨대 전쟁도 교육도 다 천황의 명령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다 허구였다니. 사카구치 양고의 글을 읽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일본은 천 여년동안 무인정치를 해내려왔다. 전국을 지배하게 된 ‘막부’의 역대수장들은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직

5면으로 이어집니다.

좌파세력 역사왜곡은 기만극이다

가까운 미래의 어느 시점에 통일 한국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 시점에 가서 우리의 후손들이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언급하기조차 싫은 부분은 북한 왕조의 3대에 걸친 독재체제와, 그 체제 밑에서 신음하며 처참하게 굶어 죽어가던 2천3백만 동포들, 그리고 그런 터무니없는 체제와 정권의 유지를 위해 절대다수의 생존을 포함한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도 세계사의 대하적 흐름에 역행하는 고립된 폐쇄사회를 한반도의 북녘에 장기간 구축했다는 사실과 기록일 것이다.

그런데 과연 통일 이후 우리 후손들의 우리 현대사 인식을 그렇게 전망할 수 있을까. 지금의 청소년 세대가 조국 통일 이후의 주도적 제1세대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우리 현대사 인식은 실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한일 국교 수립 이후부터 그리고 특히 최근에 와서 노골적으로 우리 역사를 훼손하고 왜곡하며 맹렬하게 도전해오고 있는 일본의 야욕과, 국교정상화 이후 급속히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이른바 변강사지연구(邊疆史地研究)라는 명분 아래 동북공정을 통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어 먹어버리는 작업을 거의 완료하여 새로운 중화주의로 도전해오고 있는 현실에서, 적어도 이러한 엄청난 역사 침탈에 대응해서는 독립운동에 견줄만한 대응과 준비가 시급히 그리고 정교하게 이루어질 것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 역사전쟁에 대한 적극적 대응 또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이러한 역사 침탈이라는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직면해서 적극적 대응을 준비하는 일에는 지극히 소극적인 반면에 우리 민족사의 도도한 흐름을 스스로 부정하고 훼손해서 치밀하게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그 왜곡된 기술을 우리 민족사라고 제시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왔는데 그 결과물의 하나가 요즈음 향간에 회자되고 있는 한국 현대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이다. 어떻

게 이렇게까지 우리 역사를 우리 사회 구성원 일부가 스스로 왜곡하고 훼손하고 있을까.

이것은 물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지향하는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고있는 우리 사회의 일부 구성원, 그리고 전시대적 정치이데올로기에 빠져 그 비판정신이 미시적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수준에서 맴

특별기고



이택휘

·전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학교법인 동원학원 이사장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큰 폐해 사실 외면 역사관 기술 막아야

돌면서 거시적 역사의 흐름을 보지못하거나 거부하는 소수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긴 하다.

그렇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아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관람하고 이런 종류의 자료를 교재로 우리 역사 교육을 받고난 청소년들이라면 아마도 우리 태극기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 애국가를 부르는데 주저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 다큐멘터리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친일 강패들에 의해 성립되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박정희로 대표되는 친일 주구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이 주조를 이루는 다큐멘터리를 고도의 첨단 영상구성 및 제작기술을 동원하여 만들어냄으로써 이것을 보고나면 매우 수준 높은 역사 다큐멘터리로 인정하고 양식있는 시민이 아니라면 그 내용이 우리 현대사의 주류라고 그대로 믿을 수도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았다. 그 결과 수백만명의 우리 시민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있어 향간에 화두가 되고 있

다.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교육 자료로 채택되어 우리나라의 중등교육 현장에서 청소년 학생들에게 학습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이러한 역사 교육을 받고 성장한 청소년들이 그러한 왜곡된 부정적 역사인식을 가지고 향후 통일 한국의

주역이 되었을 때를 생각한다면 참으로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아니하다. 이렇게 철저하게 왜곡된 역사인식이 상당히 광범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우리 현대사 인식이 향후 미래세대 한국사관의 주류를 형성할 수도 있다고 심각하게 성찰해야 하는 문제가 오늘의 양식있는 지도층의 중요 과제로 제기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왜곡된 역사인식이 강한 주장자일수록 진정한 민주주의를 간판으로 내세운다. 현대세계에서 가장 반민주주의적 정권과 체제가 북한의 장기간의 3대 세습독재체제라는 사실은 오늘의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에 대한 비판은커녕 그럴 수도 있다는 음성적 옹호론을 퍼거나 우물쭈물하는 애매하고 이상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오늘의 한국 사회는 현대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위기와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이미 민주주의의 정착에 성공한 사회임

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들은 어느 선진 민주주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한 갈등들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시민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서 선진적으로 제도화되었음을 뜻한다. 평양의 광장에서 북한정권의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가 공개적으로 열렸거나 3대세습독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북한 언론이 있다는 말은 우리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왜곡된 한국 현대사를 주장하는 저들이 내세우는 진정한 민주주의란 위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저들은 미시적인 사회적 갈등들을 확대재생산하는 낡은 방략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역사를 기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위선이거나 독단이요 자기기만이다. 특정의 가치 또는 특정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만 역사를 인식하고 기술하는 것은, 그것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경우에는 역사를 기만하는 것이며 결국 자기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그것이 무지로부터 비롯되었거나 의식화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라면 독단이다. 선사시대에 관한 논의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가설적 담론을 전개할 수 있지만, 적어도 역사시대 이후의 역사는 철두철미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특정의 역사관에 맞추어 역사적 사실들을 선택적으로 기술해 놓고 이것을 실증적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역사인식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 또한 역사 왜곡이며 역사를 속이는 자기기만이다. 20세기 후반 프랑스와 유럽을 대표하는 사상가 중의 한 사람이었던 레이몽 아롱(Raymon Aron)은 그의 역저 ‘역사인식의 재차원’의 서두에서 역사적 사실과 역사인식이 일치할 때 그것이 역사적 양심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 양심을 신념으로 하여 시대를 선도해나갈 정치적 리더십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에 살고 있다. [\[필자주\]](#)

4면에서 이어집니다.

접 호령을 하기보다는 천황이 호령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자기 스스로가 맨 먼저 이에 적극 복종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통치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래서 무력한 천황은 천황대로 그대로 두고 자기 천황으로부터 이른바 ‘정미대장군’(오랑캐를 다스리는 장군의 우두머리)으로 임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기실, 정치의 전권을 행사했던 것이다. 이것은 일본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지만 아무도 그 허구성을 입으로는 말하지 않고 지내왔을 뿐이었다. ‘막부’ 정치가 끝나고, 이른바 ‘명치유신’으로 ‘천황의 친정체제’가 확립되었다고 떠들었으나, 이런 체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유

신이후의 정치를 주도한 군부도 국민들 앞에서는 천황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태도를 취하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아무도 천황의 명령을 기다리지는 않았다. 천황은 다만 의전용이었다.

일본 군부는 누구보다도 천황을 높이 받드는 척 했지만 진실로 천황을 받들지도 않았고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천황의 이름을 빌린 것은 반대파의 비판을 제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일반 국민으로 보면 여전히 천황은 최고 군주요 신화적인 신앙의 상징이었다. ‘막부’라는 말도 도쿠가와 시대에는 없었고 당시에는 ‘조정’ 또는 ‘공의’라고 지칭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도쿠가와 막부’라는 말은 명치유신 이후에 신군부가 만들어낸 용어였다는 것이다. ‘조정’이란 무엇인

가. 군주가 정치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이라는 뜻이 아니던가. 역대의 도쿠가와 장군은 그들 자신이 왕이었고 그들의 본부였던 ‘에도’ 성이 바로 ‘조정’이었던 것이다. ‘막부’라는 말은 정치의 중심이라는 뉘앙스보다는, 전장에 가설된 하나의 천막, 하나의 야전군 사령부라는 느낌이 더 강한 용어이다.

어쨌든 많은 일본 사람들이 다 알고는 있었으나, 아무도 입으로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고 있던 사실을 처음으로 말했다는 점에서 ‘타락론’의 필자는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1세기에 접어든 지금도 중의원 해산에 천황의 해산 명령이 낭독되고 여야의원들이 일제히 환호하며 황궁하다는 듯 만세삼창을 부르는 장면을 목격하고 내가 놀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한다.

이명박 17대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찾아갔다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었지만, 이에 덧붙여 ‘일본 천황이 앞으로 한국에 오려면 역사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한 말은, 우리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이겠지만, 일본으로서서는 크게 충격적인 발언이라는 것을 짐작하기에 별로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천황’을 ‘일왕’으로 부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다. 외교를 하려면 상대국의 역사와 상대국 국민의 정서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양국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려면, 꼭 필요한 경우를 제하고는, 천황에 관한 언급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옳다. [\[필자주\]](#)

北의 사이버 적화공작 막아야 한다

지난 3월 20일 오후2시 KBS, MBC, YTN, 농협, 신한은행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사이버공격으로 전산망이 무력화되었다. 또한 3월 26일 데일리NK 등 대북관련 사이트에 대한 추가 공격이 있었다.

지구상에서 이 시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반문명적인 사이버테러를 자행할 집단은 과연 누구인가? 4월 10일 정부 합동대응팀은 3월20일 사이버공격의 당사자로 북한(정찰총국)을 지목했고, 이의 근거로 IP 등 공격경로의 역추적, 과거 북한이 사용한 경유지 등 공격기법, 북한이 개발·유포한 악성코드 유형 등이 제시되었다.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은 것은 이른바 77 사이버대란이다. 북한은 2009년 7월 7일 61개국에 있는 435대의 공격명령 서버를 이용해 청와대·국방부·국회·한나라당·네이버 및 미국 백악관·국무부 등 무려 35개 사이트를 공격하여 접속장애를 일으킨 바 있다. 또한 2011년 3월 3~5일에도 70여 개국 746대의 서버를 활용하여 국내 40여개 공공망에 대한 D-dos(디도스)공격을 행한바 있으며, 같은 해 4월 농협전산망의 무력화 등을 통해 해킹역량이 입증된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사이버공간을 활용해 대남적화공작을 전개한 것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사이버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인터넷 사용인구/인구비례 세계2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율 세계4위 등)인 것을 감안하여 사이버공간을 ‘적화혁명의 해방구’로 유용하게 활용하며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활용해 왔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무렵부터 사이버전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민무력부 소속의 국방과학원,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 모란봉대학 등을 통해 사이버기술, 사이버전을 연구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온 바 있으며 현재 사이버 기술역량이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4위권의 사이버공격

특별기고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
대책실 선임연구관

간첩행위·심리전·테러등 자행 법제정...시설·인력 정예화 시급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양성된 사이버전사들은 대남 공작기구의 사이버전담부서에 배치되어 사이버정보수집, 해킹, 테러, 사이버심리전(대남선전선동) 및 사이버전 등을 전개해오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남정보의 수집이다. 북한은 예전 같으면 직파간첩이나 고정간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이제는 북한 대남공작부서 사이버요원이 평양 및 중국내 공작거점에 앉아 우리의 국가기관망, 공공망, 상용망에 수시로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이를 위해 해킹을 자행하고 있다. 북한은 대남공작기구 내의 사이버전담부서

원들이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해 한 국내 군기관, 국가기관, 공공망 등에 대한 해킹 등을 통해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허위정보 및 역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둘째, 사이버 심리전이다. 북한은 해외에 서버를 둔 친북인터넷사이트 망을 130여개 구축

해놓고, 이를 통해 북한체제와 당노선을 미화하고 선전선동하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우상화 및 대남심리전공작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이다. 통일전선부에서는 심리전차원의 대남사이버공작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이들 사이버전담 부서에는 이른바 ‘댓글팁’을 운용하며 국내에 조작된 정보와 여론을 확산시켜 국론분열과 사회교란을 부추기고 있다.

셋째, 사이버테러 유형이다. 북한은 2009년 7.7 사이버대란, 2011년 3.3 디도스공격, 4월 12일 농협 전산망무력화, 2012년 중앙일보 웹사이트 해킹사건, 2013년 3.20공격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넷째, 사이버 간첩교신 유형이다. 국내에 직파된 간첩 및 장기간 암약하는 고정간첩들은 과거와 같이 무전기를 통한 대북보고나 무인포스트에 의존하지 않고도, 진일묘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대북보고나 지령을 하달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 2011년 왕재산간첩사건 등에서 북한이 국내 간첩과 첨단 이메일을 통해 교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보건대, 현재까지는 북한이 인터넷공간을 이용하여 체제선전 등을 통한 심리전 전개, 대남정보수집, 사이버테러 및 간첩교신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국가안보망과 군사망을 무력화시키는 사이버전까지 감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된다. 특히 2011년 농협전산망 무력화와 2013년 3.20 사이버공격은 ‘공공망에 대한 디도스공격’(낮은단계 테러)에서 중간단계의 테러이나, 이는 향후 높은 단계의 대형 사이버테러의 예고편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사이버공간에서 자행되는 북한의 대남적화공작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한다면 우리는 향후 중대한 체제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이버안보 영역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사이버안보법(가칭) 등 관련법의 신설·보완, 사이버안보관련 부서의 확대 및 정예화, 사이버보안기술의 개발, 전문가 양성, 사이버윤리 및 안보교육 시행, 민간차원의 사이버방어 네트워크 구축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

창조경제의 개념과 일자리 창출

박근혜 정부를 상징하는 정책브랜드는 창조경제다.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민주화를 실천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야심찬 플랜이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야당의 반대를 무릅 쓰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을 개편했고 국정 어젠다를 창조경제에 두었다. 박근혜 정부는 새 정부 출범할 때 따라붙는 ‘OO정부’ 같은 정치적 수식어를 떨쳐버리고 창조경제를 국정 최고목표로 정하고 성장이 멈춰버린 한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그러나 다소 추상적인 표현의 창조경제는 처음부터 개념정립이 안 돼 장관 후보 국회청문회에서 장관 후보들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창조경제 개념을 두고 설왕설래 혼란이 일자 박 대통령이 직접 창조경제의 개념을 정립했다. “창조경제란 창의성을 우리 경제 핵심 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을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해 창조경제의 개념 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내 지식으로

창조경제와 인문학

풀어 해석하면 제조업을 뛰어넘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융합하고 거기에 문화까지 보태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제적 미래의 불확실과 일부 노동조합의 횡포, 부를 독점한 재벌의 투자지피로 성장이 멈춰버린 한국경제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신규고용의 감소로 한국경제에서 일찍이 볼 수 없는 실업대란을 겪고 있다. 고용대란은 중산층 몰락으로 이어지고 극소수 상위층에 집중된 부는 소득양극화를 심화시켰으며, 상위 10개 재벌은 37조원이라는 거액을 쌓아두고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이 바람에 일자리 창출이 없어 대학가는 휴학생이 늘어 과 정원의 반이 휴학하는 실태다. 7~8년 째 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 다반사인



김 화

·본회 전문위원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현 데일리 리뷰 정책고문

게 오늘의 한국 대학 풍속도다.

이 같은 실업의 심각성은 실업자의 영혼까지 파괴하면서 한국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제일의 장애물로 등장했다. 박 대통령은 실업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창조경제를 국정어젠다로 정했고 그 핵심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 성장이 멈춘 오늘의 한국경제에

서 재정적자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 ‘일자리 가뭄’이다. 미국의 오바마와 일본의 아베가 신흥국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돈을 마구 찍어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펴는 것도 속내는 일자리 창출에 있다. ‘인간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소가 바로 고용이다. 비자발적 실직이 길어지면 유능한 사람도 무능한 사람으로 인식되기 십상이다. 장기 실업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존

감에 입은 상처는 깊은 것이다.’(미국의 노벨경제학 수상자 폴 크루그먼)

창조경제의 발원인 창의력은 인문학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뜻한다. 패러다임의 대전환은 기술보다 우선한 것이 창의력이다. 오늘의 경제구조는 정보기술에서 진화한 지식기반산업이다.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산업을 거쳐 지식기반산업으로 돌입했다. 지식기반산업은 문화사업과 서비스업으로 확대된다. 한 동안 세계를 휩쓸었던 정보통신산업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그래서 세계 초일류 기업은 ‘다음의 먹을거리’ 연구와 기술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바이오산업과 로봇산업이 그 일부다.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세계 경제 사이클은 20년 후에는 현재 직업의 70%가 없어진다고 미래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창입이 늘어나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창업을 하려면 창의력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젊은이들은 교육제도 등 여러 가지 원인 등으로 창의력이 성장할수록 떨어진다.

7면으로 이어집니다

진보세력 문화권력 장악 심각하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흔하게 볼 수 있게 된 풍경이 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문화예술인이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는 모습이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즉각 “누가 어느 후보를 지지한 다더라”는 말이 빠르게 퍼져 나간다. 대통령선거처럼 치열한 선거 판이 벌어지면 ‘멘토단’이라는 것도 나타난다. SNS에서 많은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특정 후보의 멘토로 나선다. 단순한 지지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정치 참여다.

어떤 문화예술인들이 누구를 지지했는지, 누구의 멘토가 됐는지 유심히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문화예술인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진보 후보 주변에는 문화예술인들이 넘쳐난다. 수적으로도 압도적일 뿐 아니라 지명도, 인기도 면에서도 보수 진영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

대선때 집단적 의사표시

문학 분야의 예를 들어보자.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일부 문인들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멘토단을 구성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등장한 뒤 이들은 단일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역시 하이라이트는 선거 막판에 문인 137명이 한 신문에 ‘우리는 정권 교체를 원합니다’는 제목으로 광고를 게재한 것이었다. 문단에서 137명이라는 인적 규모는 웬만한 문인들은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대선 기간 동안 문인들의 집단적 의사 표시는 모두 진보 쪽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보수 성향의 대표적 문인인 이문열 씨는 “일반 국민은 보수 진보가 50대 50 정도로 엇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 문단에서는 드러난 것만 놓고 보면 10대 90, 심하게 치면 0대 100까지 진보 일색”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룬 연극 ‘한강의 기적’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동은 보수 쪽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이 작품은 1910년대에 같이 태어난 박정희 이병철 정주영이라는 세 인물을 등장시켜 박정희 시대의 경제 개발을 그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산업화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 쪽 연극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기고



홍찬식

·동아일보 수석논설위원

김대중-노무현 정부 거치며 ‘主流’로 보수성향 작품 불이익…정부는 눈치

이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에 연극계 일각에서는 “박정희를 미화하는 작품을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극장에서 공연해도 되느냐”며 반발했다. 이 연극이 공연 장소로 잡은 아르코예술극장이 정부 산하의 시설이라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연극의 막을 올리지도 않았는데도 ‘박정희 미화 연극’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한 것도 잘못됐지만 더 우스꽝스러운 것은 정부의 대응이었다. 일부 언론이 이 내용을 보도하자 극장 측은 곧바로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공연장 대관을 취소해 버렸다.

문화예술계에서 발표 장소를 갑자기 빼앗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소동은 문화예술계의 세력 판도와 관련해 두 가지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문화예술계에서 보수 성향 작품은 언제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진보 쪽 문화예술인들이 정부 기관마저도 눈치를 볼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문화권력’으로 불리는 문화예술계의 주도권은 1998년 집권한

김대중 정부와 2003년 등장한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급속히 진보 진영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민주화 세력의 이른바 ‘문화 진지(陣地) 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1970년대 민주화 세력들은 문화를 운동의 수단으로 삼았다. 당장 힘으로 정권을 타도하기는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제 영화는 한 작품이 10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는 시대가 됐고, 젊은 세대들은 연예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울고 웃는다. 인기 스타들의 정치적 견해에 대중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더구나 SNS 등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대중문화 이외에 다른 문화 장르까지도 문화예술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사람들은 문인의 작품은 읽어 본 적 없어도 문단에서 차지하는 지명도만으로 해당 인사와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으며 공유한다.

앞으로 문화의 힘이 커질수록 좌파 문화 권력의 힘은 확대될 것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왜곡된 문화 권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장 뾰족한 방법은 없어 보인다.

지난 이명박 정부도 문화 관련 기관장 교체 등으로 시도는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현 정부에서 바로잡기에 나서더라도 오랜 세월 축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정상화하는 일 역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나마 균형을 잡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문화소비자들이, 나아가 유권자 전체가 목적을 가리는 안목과 판단력을 갖추는 것이다.

현재의 문화 세력 판도는 문화를 위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문화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시각에서 꽃을 피운다. 요즘처럼 한 목소리만이 득세하는 문화, 운동의 도구로서 쓰이는 문화는 결코 생명력을 지닐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문화가 질 낮은 선전물로 전락하고 만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점에서 문화예술인 스스로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정치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정치와 문화는 서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 문화가 정치의 들러리가 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바로 문화예술인들이다. [국문]

2000년대 들어 막강해져

진보 진영은 출판 문학 미술 연극 등 여러 장르에서 조금씩 문화 권력을 넓혀갔다. 1980년대 출판사를 만들어 좌파 이론을 알리는 책을 펴냈고, 민중미술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방송 영화 등 대중문화 쪽으로도 범위를 확대했다. TV 등 방송은 순수 문화예술보다 훨씬 파급력이 큰 분야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이들은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현재의 세력 판도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사실 1990년대만 해도 방송을 제외한 문화 권력은 지금처럼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일부 지식인 계층에서 호소력을 지녔을 뿐이다. 정치에 미치는 힘도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6면에서 이어집니다.

창의력의 발원은 인문학(철학·문학·사학)인데 그동안 한국사회는 인문학을 철저히 배제했다. 창의력은 생각의 깊이에서 나오고, 생각은 인문학에서 발원한다. 한국사회는 머리가 우수한 학생은 지금도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법대와 의대에 진학한다. 철학·문학·사학 전공자는 경시하고 법학과 의학 전공자는 우대해 왔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로스쿨 나와 변호사 대도 판검사로 임용되지 못하면 일부 로펌을 제외하곤 개인 사무실이나 연봉 2,500만원의 6급 공무원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의사도 예외는 아니다. 대형종합병원에 들어가지 못하면 동네에서 개인병원을 개업해야 하는데 환자가

없어 개업할 때 시설한 설비의 은행 대부금을 갚지 못해 밤에 도주한다. 개인 변호사도 사무실 운영이 안 돼 2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변호사가 부지기수다. 머리 좋은 젊은이가 인문학으로 가서 창의력을 개발해 창업을 하면 훨씬 성공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이제 한국사회도 성공의 척도가 바뀌어야 인문학이 활성화 할 수 있고 인문학이 활성화 돼야 창업이 늘다. 현대사회는 평생직장이 아니라 평생직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대학은 ‘취업기지’가 아니라 ‘창업센터’가 돼야 한다. 이를 성취하려면 인문학이 존경받고 육성하는 사회풍조가 조성되어야 한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대학의 특수대학원에서 인문학 대학원이 최고 인

기란다. 한 때 각광받던 경영대학원·홍보대학원·정책대학원은 한 물 가고 기업의 CEO들이 인문대학원에 경쟁적으로 수학하면서 사고력과 창의력에 대한 뇌의 문을 활짝 열었다. 인문학 중에서도 특히 철학은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실존주의 이후 철학사조가 나타나지 않은 것도 세계적인 인문학의 빈곤 때문이다. 세계적인 전자통신기업 애플을 세운 스티브 잡스도 중퇴했지만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다. 잡스는 청년시절 3년 간 인도에서 히피처럼 방랑하면서 동양의 철학과 미에 반해 귀국해서 HP에 다닌 기술자친구와 양아버지 차고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매킨토시 컴퓨터를 만들어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나왔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인문학적 지식이 있어야 시대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

창의력이란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창의력이란 한 번 쓴 아이디어는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다. 창의력이란 같은 표현력도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능력이다. 발레리나 김주원은 ‘백조의 호수’에서 백조 역을 15번이나 맡았지만 그 때마다 백조를 다르게 표현했다. 창의력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한번 충전한 지식은 유통기간이 10년을 넘지 못한다.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도 창의력이 기반이며 그 창의력은 인문학에서 발원한다는 엄연한 진실을 우리는 이 시대에서 다시 한 번 각성해야 한다. [국문]

개성공단 문제 유화론서 ‘강경’ 선회

개성공단에서의 북한 근로자 철수 선언은 남북관계의 취약성을 증명한다. 가동 중단 사태가 18일째에 이르자 정부는 4월25일 북에 대해 당국자 간 실무회담을 제의하고 불응할 경우 중대조치를 취할 것임을 표명했다. 신문들은 북한에 대화에 응하라고 촉구하면서 ‘쉽게 풀릴지 의문이다. 이대로 가면 폐쇄의 길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태 초기에 신문들은 개성공단이 ‘남북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라며 북한을 비판했지만 개성공단이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인 만큼 유지해야 한다는 유화론이었다. 그러나 북이 체류자의 식량 의료 등 인도적 처우까지 막자 논조는 경화했다.

동아일보는 26일 사설 ‘北, 개성공단 체류자 전원 철수도 각오해야’에서 “정부는 북한이 세 번째 대화 제의를 묵살하면 개성공단을 재개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개성 체류자 전원 철수 방안도 포함시킬 수 있음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9일엔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자 민족 공동번영의 시험장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사업이다.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평가되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크다. 개성공단은 북한에 시장경제 가치를 전파하고 북한 주민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남북 화해와 협력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소통의 장”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26일 사설로 “북한은 남측이 개성공단 문을 닫고 떠날 수밖에 없는 쪽으로 내몰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 분단 60여년 만에 처음 만들어진 남북 경험의 상징적 존재다. 지난 9년 동안 개성공단은 우리보다 북한에 더 많은 경제적 도움을 줬다”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문을 닫는 것인지 물었다. 9일 사설에선 “정부는 남북 경험의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것이 미래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 아래 북의 온갖 도발에도 개성공단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다. 북한은 우리의 이런 노력을 보고 개성공단이 마치 대한민국의 급소라도 되는 양 착각한 모양이다”라며 개성공단의 미래를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9일 사설에서 “개성공단은 남북한 모두에 경제적·정치적·상징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유익한 존재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의 말처럼 ‘남북 관계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마중물’이란 펌프가 돌도록 처음에 집어넣는 물이다. 그러나 1년에 8,000만~9,0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북한에 ‘마중물’로 들어갔으나 그 결과물은 회의적이다. 중앙은 “군사적 요충지를 내준 것은 큰 양보이며 북한보다 남한이 더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북한 주장을 인용해 조선 사

설과 대비되었다. 군사적 요충이란 북침 의사가 없는 이상 무의미하다. 삼성 등 대기업들의 개성공단 외면도 북의 불가촉성 탓이다. 한국일보 9일 “금강산관광 중단의 전철을 밟게 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결 완충장치로서 평화의 최후 보루이기도 한 개성공단을 이렇게

신문시평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도 포격, 박왕자 관광객 총격 살해의 동족상잔과 남한 금융전산망 교란 등 사이버테러는 일어날 수 없었다. 신문들은 어떤 충돌 국면에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한 것이 큰 자랑인양 썼다. 한쪽에선 포격으로 살상하는데 한쪽에선 못 만든다고 부산떠는 모습은 화해와 협력의 모

보는 낙관적 판단은 지난 몇 해 동안 되풀이된 착오다. 그 결과 핵문제는 더 나빠지고 한반도 긴장 수준은 더 높아졌다. 대북 특사는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한반도 긴장을 정부 탓으로 돌렸다.

대북특사 파견 엇갈린 논조

조선은 8일 ‘대북 특사, 때가 아니다’에서 “특사가 간다고 해도 북은 문제의 근원인 핵은 그대로 둔 채 자기들이 일부터 만들어낸 위기 조치를 거두는 것을 큰 선심이라도 베풀 듯이 하면서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선 특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없다”고 근본 문제인 북핵을 짚었다.

문화는 대북 대화 제의에 대해 12일 “남북관계 패러다임을 바로 세울 절호의 기회를 걷어차는 셈이다. 김대중 정권은 김일성 사망 후 1990년대 중반 북한이 체제 붕괴나, 개혁·개방이라는 기로에 서 있을 때 햇볕정책의 이름으로 ‘무조건 지원’을 시작했다. 결국 북한 김정일 체제를 연명·강화시키고, 배급체제의 붕괴와 초보적 시장경제 출현을 가로막았으며, 핵·미사일 개발의 뒷돈을 대주는 셈이 되고 말았다. 그런 잘못을 되풀이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문화는 19일 사설에도 “우리의 핵을 민족공동의 자산으로 떠받들고 있으면 앞길이 창창하지만 미국의 핵우산을 쓰고 있으면 망하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북의 모욕적 주장까지 듣게 됐다며 ‘대북 읍소’를 비판했고 25일 ‘서울프로세스는 北核문제 희석시킬 우려 크다’ 사설에서도 “지난 20여 년 간 북핵 외교의 실패는 대북 압박 이외에 대안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프로세스는 북한 비핵화 노력의 초점을 흐리게 한다. ‘신뢰’에 기초한 접근도 지나치게 안이하다”고 나무랐다. 일본의 니케이는 16일 사설에서 “대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북한의 핵 포기가 진행되는 경우 대화를 마다 할 이유는 없다. 반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면, 대화에 의해 일시적으로 긴장이 누그러졌다 해도 결국 그들에게 핵무장의 시간을 주는 것만으로 끝나 버린다. ‘비핵화를 취할 경우 대화가 시작된다’고 켈리 장관은 서울기자 회견에서 말했다. 뒤집어 말한다면 먼저 북한이 핵 포기를 약속하는 것이 대화에 응할 대전제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언론은 끊어가는 물에 적응하여 둔갑해지는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된다. 남과 북 모두를 위해 북핵 문제에 보다 더 민감해야 한다.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며 북한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냉철한 이성이 절실하다. [4]

北태도 변화없자 “폐쇄각오” 촉구 남북관계 큰틀서 조명 논평 아쉬워

몰아가는 북측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 2010년 천안함 사건 후 5·24 조치로 남북관계가 전면 중단됐을 때도 예외로 남아 남북긴장을 완충하는 역할을 했다”면서 25일 사설에선 실무회담 제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개성공단은 안보와 직결된 문제”

개성공단은 북에 개혁과 개방이 파급되리라는 명분으로 급히 세웠다. 그 결과 초코파이는 북한 전역으로 퍼졌는지 모르지만 개혁과 개방 대신에 달러박스만 챙긴 모습이다. 화해와 협력을 위한 급선무는 당국 간의 상설 대화기구다. 걸핏하면 대화에 응하라고 촉구해야 하는 것 자체가 기초가 날림인 남북관계의 상징이다. 지금 남북의 근본 현안은 북핵이다. 그 해결이 없는 남북관계는 모래성이다. 북의 핵무장으로 남한은 북핵의 ‘그라운드 제로’ 협박에 몰모가 된다. 개성공단 9년이 그 시늉은 했는지 모르지만 남북 화해·협력의 기운이 퍼졌다면 북의 공단 일방적 철수는 물론이고 46명 장병이 산화한 천안함 폭침, 연평

습이 아니다. 남북의 끈은 절대 놓지 말아야한다는 충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본말을 전도할 수는 없다. 북핵과 대남 도발, 협박이 ‘개성공단만이라도’라는 존속의 명분을 채우기 어렵다. 차체에 북핵과 평화공존 문제, ‘남한만의 정경분리’라는 ‘편리한’ 정책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남북관계의 큰 틀을 생각하는 신문들의 근본적 논평이 아쉬웠다. 문화일보만이 4일 사설에서 “확실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폐쇄하는 게 낫다. 개성공단은 단순히 입주기업의 경제적 이해를 넘어 훨씬 더 중요한 국가 안보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촉구했다. 국민일보는 “일부에서는 매년 거액이 북으로 흘러가 결과적으로 독재 권력의 유지와 핵무장 등에 사용됐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북으로서도 군사적 요충지인 이곳을 양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논지를 펼쳤다.

한겨레는 10일 사설로 “시간이 지나면 북쪽이 급하고 들어올 것으로

봄철 야외수련 공주로 갑니다

5월 21일 오전 7시 30분 프레스센터 출발

봄철 야외수련 행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회우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13년 5월 21일(화) 오전 7시 30분(시간 엄수)
- 집합장소 : 프레스센터 정문 (관광버스 대기)
- 행 선 지 : 충남 공주 일원 문화유적지
- 참가신청 : 선착 순 80명. 5월 14일 하루만 받습니다.

전화. 732-4797/8 팩스. 730-1270

북한뉴스 전달 방식 시정돼야 한다

방 송 시 평



오건환

·본보 편집위원
·전 KBS 파리총국장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지난 두 달 가까이 북한의 노골적인 핵위협 등으로 북한 관련 뉴스가 유난히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다.

시도 때도 없이 전쟁 상황에 돌입했느니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는니 하는 상투적인 북한 방송을 그대로 중계하는 것 같은 방송 뉴스를 시청해야 했다. 한껏 음성을 가다듬고 과장된 표정에 일부러 목소리까지 떨어가며 “우리의 존엄 운운...”하는 북한방송 아나운서는 그 우스꽝스런 방송 모습에 서울 불바다라는 내용의 심각성을 느끼기 전 어설픈 코미디쯤으로 느끼게 할 정도로 이제는 익숙한 모습으로 비칠 정도다.

북한 김정은의 뉴스와 동정이 방송 뉴스에서 우리 대통령보다도 더 많이 나올 지경이었다. 모두가 다 잘 알다시피 북한의 직함은 유난히 길고 그 앞에 수많은 수식어를 붙여 부르던 생전의 김일성은 언제 수식어가 끝나고 이름이 나오나 기다려야 할 지경이었던 것을 기억한다.

북한 관련 뉴스의 양이 많아지고 빈도가 잦아지고 뉴스의 중요도가 커짐에 따라 북한 뉴스를 전달하는 양식과 방법을 고민해 봐야하겠다.

긴 직함 나열에 시간뺏겨

우선 북의 김정은에 대한 호칭을 부자연스럽게 기다란 직함을 꼬박 꼬박 다붙여서 부르는 관행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특정 기자나 방송사를 불문하고 1분 30초 초 리포트에서 김정은을 주어로 할 경우 매번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이란 직함을 꼬박꼬박 붙여 부르고 있다.

짧은 리포트 시간에 이렇게 직함을 꼬박꼬박 붙여부르는 것은 우리말의 전달방법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반복되는 이름을 지칭할 경우 성 뒤에 직함을 넣을 수 있고 직함을 완전히 생략하거나 긴 직함은 줄여서 부를 수도 있는 것이 자연스런 우리말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KBS의 9시뉴스 진행자의 소개 멘트는 모범적이라고 생각한다. 민경욱 앵커는 김정은 관련 뉴스를 끝내는 멘트를 한 번은 직함을 붙여 부르고 다음엔 성이나 이름만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척 자연스럽게 들린다.

그러나 본 뉴스의 리포트가 나갈 때는 어김없이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이 매번 반복되고 있어 귀를 거슬리게 하고 있다.

제1국방위원장이란 7음절을 세 번만 생략해도 1분 30초 길이의 귀중한 리포트 시간을 10초 정도 줄여 다른 중요한 내용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의 뉴스 뿐 아니라 사망한 김정일은 영원한 국방위원장이고 김일성은 영원한 주석으로 우리 뉴스에서 불변의 직함을 지닌 존재로 남아 있다. 심지어 김일성의 생일을 기리는 북한의 소위 태양절을 “김일성의 생일인”이나 “소위”, “이른바”란 수식어

없이 “태양절”이라고만 불러 어리둥절할 때가 있다.

리포터하는 기자나 데스크, 편집자까지 표현 그대로 이른바 북한의 태양절을 우리의 국경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지난 4월 15일을 전후해서 쏟아져 나온 북의 태양절이란 말이 들

김정은 직함 부르는 호칭 거슬러 “평양방송 중계” 착각 일으키기도

어간 뉴스의 홍수로 아마도 우리 어린 청소년들은 북한의 태양절이 우리 4대국경일의 하나로 인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관련 뉴스를 의식적으로 적대적으로 전하거나 북한의 정치 지도자를 의도적으로 폄하하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말의 자연스런 흐름에 맞춰 북의 직함도 부르고 부자연스러울 만치 과장하는 전달 방식 등을 그대로 중계하듯 하는 보도가 객관적인 사실 보도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어떻게 북한 뉴스를 전하고 보도하는 것이 진정한 사실보도이고 우리 시청자들이 북한을 제대로 알고 이해해서 남과 북이 진정한 소통으로 화해와 평화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이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지는 것이 아니다.

한심한 국회의원 작태

하기야 북한 방송은 날마다 우리방송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욕지거리를 섞어 우리 대통령과 군, 국민을 모욕하고 위협하는 마당에 우리의 거룩하고 위대한 국회의원 한 분은 국회에서 통일부 업무자료에 북한의 제1국방위원장이란 직함 없이 김정일로만 표기된 것을 보고 “정부는 북한 김정은에게 정중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통일부 문건을 들어 보이면서 류길재 통일부장관에게 김정은의 공식 호칭을 물어 류 장관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고 한다는 답변을 듣고 “사적으로는 그냥 ‘김정은’이라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표기하는데 ‘김정은의 군부대 방문’ 이런 식의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그는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가리켜서 ‘박근혜’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자체가 상황의 악화를

의미한다.”며 “정부는 ‘이런 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걸 보여 주도록 정중한 예를 갖추기 바란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방송에서 욕지거리에 가까운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한 잘못을 한번도 지적해보지 못한 사람이 이 욕지거리를 일삼는 사람들에게 대

호전성이나 유치한 체제 선전 등을 정부의 입맛에 맞도록 하는 것이 북한 뉴스 제작의 기본 틀이었다.

이 때문에 지금같이 평양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로 북한방송을 직접 인용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방송사조차도 북한방송의 직접 수신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또 방송방식의 차이로 기술적으로도 북한방송의 직접수신이 불가능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 훨씬 자유스럽게 북한 방송을 수신할 수 있고 방송 내용을 캡처해서 뉴스에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텔레비전을 통해서 북한 방송 장면이 아무런 가공 없이 그대로 방송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안보의식 무디게 할 수도

그러나 객관적 사실 보도라고 해서 북한 방송을 그대로 인용해서 방송하는 것은 시청자들을 오도할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의 도발 위협을 전하는 뉴스에서 북한방송이 내보내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장면이나 분열 장면 등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방송할 경우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거나 반대로 안보의식을 무디게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아무리 북한 방송이 핏대를 올리면서 핵위협을 퍼부어대도 우리 국민들은 전혀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반도 위협을 취재하러 왔던 전쟁전문 외신기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지 않은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북 세력이나 그 아류 또는 추종세력들에게는 자칫 그들의 그릇된 의식을 더욱 공고하게 할 수도 있고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미성숙인에게는 뉴스의 정확한 내용과 관계없이 막연한 호감 등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나는 사실 보도와 객관 보도를 위해 빈번하게 북한방송을 인서트하는 것을 재고해봤으면 한다.

또 수 백 번도 더 인용되는 북한의 다연장포 발사, 장거리 미사일 발사, 미사일 열병 장면 등은 이따금 스틸 사진으로 대체하는 등의 변화를 주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현상을 사실로 인식하도록 하는 오류를 벗어났으면 한다.

이런 나의 생각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다. 차제에 북한 뉴스 특히 북한 지도자에 대한 호칭과 북한방송 캡처, 인용 방송하는 문제 등에 대해 현업에 종사하는 뉴스 담당자와 학계, 시청자 대표들이 한데 모여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해 본다.

보다 정확한 북한 뉴스를 국민에게 전달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 통일의 바탕을 굳건히 하는 것이 북한 뉴스 전달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성공한 기자... 자랑스런 아버지... 멈춤

주위의 부러움 한몸에

15대 대한언론인회 회장을 지낸 제재형 회우는 네 아들이 모두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유명인사다. 큰 아들(성호)은 중앙대 법학 교수, 2남(원호)은 서울대 자연과학대 물리학과 교수, 셋째(강호)는 법무법인 양현(良軒) 변호사이며, 넷째(민호)는 이수시스템 대표이사다. 게다가 네 아들이 모두 국군 장교로 군복무를 마쳤다. 며느리들도 모두 쟁쟁한 일꾼들이다. 명문가의 가장인 제 회우는 그것만으로도 주위의 큰 부러움을 사고 있다.

제재형 회우의 실버파이팅은 그래서 ‘대한언론에’ 큰 아들(제성호·중앙대 교수·인권대사)이 쓴 아버지 자랑의 글을 줄여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아버지를 말하라”는 대한언론의 원고 청탁에 한 참 망설이다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몇 자 적기로 했다는 제 교수는 글 제목을 “아버지는 억강부약하는 영원한 기자”라고 달았다.

아들이 본 아버지像

《아버지(尺山 諸宰馨)는 일생일업의 영원한 언론인이시다. ‘기자’란 직함을 즐겨 쓰신다. “언제 무슨 소식이 걸려 올지 모른다”고 항상 전화기를 열어 놓으신다. “뉴스 소스를 밝히는 기자는 이미 기자가 아니다”란 말씀은 기자는 6하 원칙에 따른 기사로만 말한다는 기자정신의 표현으로 들린다. 기자는 억강부약의 자세로 정론직필을 펴는 문사(文士)라는 지론(持論)이시다.

아버지는 학구열에 불타는 학생이었다. 대학시절 도시락 2개씩 싸갖고 9시부터 17시까지 강의를 들어 졸업학점(180학점)보다 80학점을 더 땀가 하면 동기생인 어머니(권영순)와 함께 고등학교 교사 자격증도 받으셨다.

야간 국제웅변대학을 다녀 웅변술을 익혔고 방학 때면 고향에서 서당공부에 힘써 한학 실력을 넓히셨다. 비오고 안개 끼는 날 늑대 우는 공동묘지를 거닐며 간담을 키우셨다. 대학 2학년 때는 할머니(許必亥)와 백부님(諸廷宙)의 명을 좇아 할아버지(諸路根)의 문집 ‘우당유고(愚堂遺稿)’를 간행하셨다.

1957년에는 대학졸업, 대학원 진학, 취직 그리고 결혼식까지 네 가지를 실천하셨다. 초등학교에서 대학원까지 18년 걸리는 배움 코스를 16년 만에 끝낸 신 월반형(越班型) 학구파시다. 신문기자 된지 4년 만에 정치부 차장 대우, 그 2년 후 정치부 차장에 발령될 만큼 기자로서도 열심히 뛰어 다니셨다고 한다. “활자는 총알이다”, “기자에겐 변명이 없다” “특종은 새벽에 난다”, “뛰면서 생각한다”는 명언(銘言)은 장기영(張基榮) 창간 사주에게서 배운 것이고 오늘날까지 짚게 사시는 비결은 ‘일이 취미니 놀을 시간이 없다’는 것.

기자시절 태평로(옛 국회의사당·현 서울시의회)에서 중학동 14번지(한국일보)까지 자주 뛰어다닌 덕분에 다리 힘이 세다고 자랑하신다. 아버지는 충신 교회 장로님이다. 44세 중년에 교회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58〉

회우초대석

諸宰馨

인터뷰 : 글



‘영원한 기자’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아온 열정의 삶을 이야기하는 제재형 회우.



1985년 7월 사진. 앞줄



부인과 다들 난사람'을

아들 넷 모두 서울대 나온 저명인사... 부인-며느리 한국일보 사우회장-이승만 기념사업회 이사등 현

에 나가신지 22년 만에 장로로 장립되셨다. 그동안 장신대 평신도교육대학원,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장신리더십 아카데미, 한국장로교육원을 차례로 수료하셨다. 그리고 장로교육원 총동문회 회장도 지내셨다. 애교심이 강한 아버지는 고려대교우회 상임이사 45년 관록에 지금은 어머니와 나란히 ‘자문역’을 맡고 계신다. 고대교우 라이온스클럽을 다섯 개나 만드셨으며 고대교우회보 편집국장을 거쳐 고대 월례강좌회 회장으로서 ‘건강·장수·행복’을 추구하는 길잡이 역할도 수행하신다. 지질 줄 모르는 봉사와 섬김의 열정으로 작년엔 ‘사단법인 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을 만들어 초대 회장에 취임, 1천만 노년층 소비자의 권익보호·증진운동에 앞장서시는가 하면 ‘사단법인 영통포럼’ 회장으로서 탈북자 정착지원 사업 및 통일 일꾼 교육·양성에도 힘쓰고 계신다. 고성향우회 회장을 거쳐 경남도민회 고문으로서 고향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환경녹색운동과 푸른 강산 가꾸기에도 힘을 보태고 계신다. 라이온스연수원장, 한국JC연수원 교수부장 및 공무원교육원 교수를 역임하면서 후진

교육에도 땀을 흘리신 아버지는 지금도 “크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섬기라. 그리고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자손들을 훈계하신다.》

제 교수의 글은 더 많은 아버지 자랑과 존경으로 채워져 있지만 줄인 이 글만으로도 제 회우의 인생 파이팅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성공적인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노년에 아들이부터 이 정도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인사가 얼마나 될 것인가? 성공한 집안은 혼자 이룬 게 아닐 것이기에 사모님을 함께 뵈셨다고 말씀드리고 서울 용산(龍山)에 있는 자택을 찾았다.

이승만관련 저서에 기고

거실 TV에서는 개성 공단 관련 뉴스가 방영되고 있었다. ‘영원한 기자’의 집이란 생각을 했다. 거실 탁자에는 여러 가지 책들이 쌓였고, 놓여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 관련 만화책들도 보였다. 두툼한 책의 제목을 보니 ‘내가 만난 이승만 대통령, 남기고 싶은 이야기’였다. (사)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에서 발행한 이 책에는 “언론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

승만 대통령의 말을 제목으로 한 제재형 회우의 글도 실려 있었다. 또 낯설지 않은 책이 있어 자세히 보니 雲南李承晚博士 著 〈일본, 그 가면의 실체〉였다. 제회우가 회장으로 있었던 2007년에 이승만 박사의 영문저서(JAPAN INSIDE OUT)를 대한언론인회가 번역, 출판한 책이었다.

이 책은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의 진주만 기습 5개월 전인 1941년 여름, 일본의 침략근성을 알려 미국 조야(朝野)에 경각심을 높여 주었던 책이다. 이 책의 발간사에서 제재형 회우는 “이승만 박사의 집권말기에 문제가 있었지만 반세기의 세월이 흐른 지금으로서는 그 허물을 상쇄하고 이승만 박사의 애국 독립정신과 반공 민주 사상을 재조명함으로써 초대 건국대통령으로서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워줘야 할 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라고 썼다. ‘파이팅’의 삶을 살았고 많은 보람을 쌓아온 제 회우는 78세의 나이에도 멈춤이 없다.

(사)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이사로 이승만 대통령을 바로 알리고 위상 바로 세우기에 열정을 쏟고

없는 열정으로 산다

·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국민일보 논설위원
· 전 대한언론인회 회장
· 현 한국일보 사우회장

· 사진 = 호천웅 (본보 편집위원·수필가)



칠 차남의 미국유학을 앞두고 찍은 제재형 회우의 가족
오른쪽으로부터 장남, 차남, 4남, 3남.



정한 포즈를 취한 제재형 회우. 제회우는 '돈사람 똥사람
가혼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노리들도 쟁쟁 전직만 10여개

있으며 한국일보사우회 회장, 고려대학교 월례강좌회 고문, 사단법인 과학 선현 장영실 선생 기념사업회 상임고문 겸 심사위원장, 한국장로신문 논설위원, 경남도민회 고문, 서서울JC장학회 이사장 등 10여 가지의 직분을 맡고 있다.

선관위 유권해석 보도로 사표 쓰기도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제재형 회우의 기자시절 모습이 궁금했다.

-기자 생활 이야기부터 해 주실까요?

“나는 정치부 기자로 시작해서 정치 부가지로 끝났다고 자부합니다. 국회 출입기자 30년을 늘 자랑거리로 간직하고 있어요. 3대 국회부터 10대 국회까지 출입해서 ‘8선 기자’란 별명을 듣기도 했구요.”

-특종 많이 하셨죠? 그 얘기 좀.

“먼저 내가 사표를 냈던 사건부터 얘기를 해야겠네요. 1967년 이었죠. 그해 6월의 제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5월에 목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여당 후보를 밀어 달라’는 선거유세를 했어요. 야당인 김대중 후보의 기세를 꺾겠다는 계산이 깔려있었죠. 한국일보 정치부 차장으로 국회와 정당을 출입할

때인데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냈어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선거유세에 나서는 것은 불가(不可)하다고 보는 데 ‘귀견(貴見)은 여하(如何)?’라고요. 중앙선관위가 전체회의를 거쳐 보낸 답변의 주문(注文)은 ‘귀견(貴見)과 여(如)함’이었어요. ‘대통령이 여당 지원하는 유세는 선거법위반’이란 기사가 대서특필 됐고 그 일로 회사에 사표를 내게 됐죠. 그 때 장기영 사장은 경제기획원 장관이었고 한국일보 사장은 김모씨 였어요”

대학 2학년때 만나 결혼

-정치 담당기자를 하면서 1962년 말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TV 생중계 기자회견에서 “6·10통화개혁은 실패였다”고 자인하게 만든 이야기도 유명하고 박한상 국회의원과의 친밀했던 이야기 등 재미있는 일화를 많이 만드신 것으로 압니다만 줄이구요. 사모님께 여쭙 볼게요. 제 회장님 처음 만난 게 언제였나요?

“네 고려대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만났어요.”

제 회장과 동갑이며 입학 동기이기도 한 사모님 권영순 여사는 경북예천의 명문가 따님으로 국회의원과 장관 등을 지낸 권영자여사의 친언니이기도 하다. 경남 고성 의 명문가 집 아들인 제회장과 권영순 여사의 만남은 또 다른 남남북녀의 인연이란 생각도 들게 한다.

“고려대학교가 대구 피난 시절을 지내고 서울로 돌아 왔을 때 모든 게 낯설고 겁나는 게 많았어요. 입학 이듬해인 1954년 이었어요. 등록금을 내려고 줄을 서는데 잘 생긴 남학생이 친절을 베풀데요. 그리고 수강 신청할 때도 많이 도와주었고... 교직과목을 함께 이수하면서 더 자주 만나게 됐구요. 그 뒤론 계속 만났어요.”

-회장님은 처음 뵈 사모님 어디가 좋으셨나요.

“예뻐장하게 생겼더라구요. 수줍고 착하고. 줄무늬 스커트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원조(?) 캠퍼스 커플인 두 분은 교직과목 강의실과 캠퍼스에서 파고다 공원으로, 르네상스 음악감상실로 데이트 영역을 넓혔고 졸업하던 해인 1957년 가을에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

-그 시절에 고대 영문학과를 졸업하셨으면 사회 활동할 기회가 많았을 텐데요.

“미국 대사관에 일하도록 소개하겠다는 말도 있었죠. 그런데 회장님도 저의 사회활동을 꺼리셨고 곧 아이들이 생기면서 육아와 자식 교육에 전념하게 됐어요. 동생 영자가 프랑스 유학할 때 ‘언니가 있을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같아’라고 쓴 편지를 받았을 때 잠깐 부러움이 스치기는 했지만 아이들이 잘 자라줘서 보람이었고 행복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위해 세 번 이사

-네 아들이 모두 서울대학을 나왔고 두 분은 교수 그리고 두 분은 변호사와 이수 그룹의 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들 네분이 모두 성공하도록 이끄신 특별한 교육 비법이라도...

“아이들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⑮

산성과 알칼리성 식품

많은 사람들이 알칼리성 식품은 몸에 좋고 산성식품은 몸에 나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몸의 혈액이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산성식품을 먹게 되면 혈액을 산성화시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 알칼리성 식품

이들은 암세포가 산성에서 잘 자라고 알칼리성에서 소멸되는 현상을 보고 알칼리식품이 암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식품을 산과 알칼리성으로 나누는 이론은 1889년 스위스 바젤 대학의 생리학자 분게 교수에 의해 제안되었다. 식품의 산과 알칼리성은 대사 과정을 거쳐 남게 되는 무기질 성분 비율로 결정한다. 나트륨(Na)이나 칼륨(K), 칼슘(Ca) 등의 성분이 많으면 알칼리성, 인(P)이나 황(S) 등의 성분이 많으면 산성에 속한다.

식품의 맛과 관계없다. 식초나 레몬이 알칼리식품이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분게 교수는 육류의 단백질에 들어 있는 황은 몸 안에서 산화되면서 황산이 되므로 체조직을 산성으로 만든다면서 이를 중화하기 위해 알칼리성 식품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대 생리학과 영양학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사람의 혈액은 수소이온농도(PH) 7.4로 거의 중성(7.0)에 가까운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완충용



이광영

·본회 논설위원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

액(buffer solution)이다. 완충용액이란 산이나 알칼리(鹽基)를 가했을 때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PH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특성을 지닌 용액을 뜻한다. 따라서 사람의 혈액은 산과 알칼리성 식품의 섭취량에 관계없이 항상 균형을 유지하

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분게 교수의 산과 알칼리성 식품설이 진리인양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산·알칼리성 식품이 관심을 끌게 된 것은 1970년대로 대중매체가 의학적인 근거가 희박한 흥미위주의 일본 책들을 비판 없이 번역해서 보도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일본은 2차 대전 중 육류 소비를 막기 위해, 또 패전 후엔 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이를 이용했다. 우리나라도 70년대 쌀 소비를 줄이고 혼식을 장려하기 위해 ‘쌀은 산성식품’이라 했고 그 후 쌀이 남아돌자 건강에 좋다고 선전했다. 정치와 언론, 상업주의가 산성과 알칼리식품의 잘못된 신화를 만든 것이다.

건강을 위한 바른 식사법은 편식과 과식, 폭식을 피하고 약간 모자란 듯 소식을 하되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일이다. 건강에 이상이 있어 전문의가 특정 식품의 섭취를 제한하지 않는 한 산성과 알칼리성 식품을 따져 먹을 필요가 없다. [국립보건연구원 제공]

주려고 무척 노력을 했지요. 학원은 보내지 않았구요. 아이들 학습 환경에 맞추려고 진학에 맞춰 집을 세 번 옮겼어요. 나름대로의 맹모삼천지교라고나 할까요.”

-사모님께서 특별히 힘드셨던 일은요?

“네 아이 점심과 저녁 도시락 한꺼번에 8개를 함께 쌀 때가 좀 힘들었구요. 고3 때는 공부하는 아이 옆 의자에 나란히 앉아 책을 읽으며 수험생의 건강을 보살피기도 했지요.”

-교회에 나가시죠?

“장모님 박정숙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 분 가르침 따라 믿음을 갖게 됐고 지금은 집 근처에 있는 충신교회를 온 가족이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화를 위해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지금 하자는 다짐아래 신앙생활을 계속 합니다.”]

1주 한번씩 가족모임 가져

-자녀들 자랄 때 모두를 똑 같이, 상도 같이 주고 별도 같이 내리며 키우셨다면 서요?

“네 아들을 똑 같이 ‘공동 상 공동 별’로 다스렸고 육사교관이던 큰 아들

성호의 결혼식 때는 육사 교정에서 멋지게 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다른 동생들 결혼식은 그렇게 할 수 없겠다 싶어 포기하고 섬기는 충신 교회에서 네형제 모두 결혼식을 올리도록 했지요.”

네 아들이 결혼하고 손자·손녀가 자라는 지금까지도 일주일에 한번, 일요일 예배가 끝난 뒤에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가 모두 제회우 집으로 모여 식사를 같이하면서 대화와 사귀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사촌들 끼리도 아주 친해졌다는 말씀은 값진 교훈이었다.

제재형 회장은 세상에서 개인의 삶도 성공했고 자녀 교육도 성공했다. 깊은 신앙생활을 통한 내세에 대한 축복도 받았다. 고려대학교 여자교우회 회장과 석란장학재단 초대 이사장을 지낸 수필가 권영순 여사와의 금슬도 부러움의 대상이다.

며느리들도 쟁쟁한 박사요 교수요 아나운서이며 7명의 손자·손녀도 모두 자랑스럽게 자라고 있다. 오는 7월27일엔 손서(孫婿)를 본다고도했다. 그 집안에서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인물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 기대된다.

大韓言論人會

제23회 신문사진 인간애상 발표

대한언론인회(회장 홍원기)는 신문 보도사진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신문사진 인간애상 제23회 수상자로 대상에 '모든 난관을 뚫고... 결국' (경향신문 사진부 박민규 기자), 우수상에 '삼촌 부조의 입맞춤' (경향신문 사진부 강운중 기자), '오빠 등이 제일 좋아' (동아일보 사진부 양희성 기자)를 선정하고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석류홀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또한 장려상에는 '아쉬운 장미란 선수' (동아일보 박경모 기자), '장애인의 야구장 나들이' (스포츠서울 강영조 기자), '아이의 시선으로' (동아일보 안철민 기자), '눈물... 16년만의 금메달' (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수요 집회 방문한美시장' (세계일보 남정탁 기자), '기분이 어때' (뉴시스 박동욱 기자), '100번째 금메달' (세계일보 이제원 기자)가 각각 선정됐다.

신문사진 '인간애상'은 4·19 민주혁명 격동의 현장에서 소명의식을 갖고 역사의 기록을 담았던 60년대 사진가들의 모임인 한국신문사진동우회(초대회장 최경덕)가 1991년에 제정했다.

이 상(시상금 1억원)은 과거 취재 일선에서 활동할 당시 신문사진에 '인간애'를 투영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원로기자들이 후배 사진가들에게 '인간애' 구현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있다. '인간애상'은 그 취지를 살려 17회부터 한국신문사진동우회(회장 박용운)가 작품 선정을 해 대한언론인회(회장 홍원기) 주관으로 시상하고 있다. [4]



대상 모든 난관을 뚫고... 결국 박민규(경향신문)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가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2동 천우장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폭우를 맞으며 연설을 하고 있다.



우수상 삼촌 부조에 입맞춤 강운중(경향신문)

제2연평해전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고 조천형 중사의 조카가 전적비에 새겨진 삼촌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있다.



우수상 오빠 등이 제일 좋아 양희선(동아일보)

서울 마포구 상암동 난지한강공원 거울분수에서 물놀이를 즐기다 흠뻑 젖은 남매가 활짝 웃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수상소감

대상 박민규 (경향신문 사진부)

대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던 지난해 12월 14일, 아침부터 비가 거세졌다. 경남 진주에서부터 시작한 박근혜 후보의 폭우속 유세는 부산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한겨울의 폭우는 눈보다 매서웠다.

우산을 써도 카메라에는 물이 들이치고 다운점퍼가 물에 젖어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속옷에까지 냉기가 스며 들었다. '비에 젖은 생쥐 꼬'에 발걸음도 무겁다. 하지만 약조건이 사진기자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평소 여성스럽고 단아한 박근혜 후보가 흠뻑 비를 맞으며 사자후를 토하는 모습은 많은 국민들에게 깊



은 인상을 줬을 것이다. 치열했던 그해 겨울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다.

우수상 강운중 (경향신문 사진부)

북한군과의 교전 중 산화한 삼촌, 한 번 안아보지도 못한 삼촌의 딱딱하고 차가운 부조에 입을 맞추는 조카.

이 장면을 지켜보던 가족들은 눈물 속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삼촌은 적과 용감히 싸우다 전사했고, 다섯 살 조카는 기억에 없는 삼촌을 그렇게 그리워했습니다. '혈육'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제2연평해전 10주년 기념식이 열린 평택 제2함대 사령부에서故 조천형 중사의 어린 조카는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한 정을 보여줬고, 제겐 '인간애 상'이라는 따뜻한 상을 안겨 주었습니다.



우수상 양희선 (동아일보 사진부)

20대 초반 군대 시절, 한겨울 흑한기 훈련 기간에는 다가올 여름에 있을 유격훈련을 미리 걱정하곤 했습니다.

유난히도 춥던 겨울을 보내고 봄을 기다리는 지금, 올 여름에는 또 어떤 수해취재와 더위스케치로 '육수'를 쏟게 될지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접한 수상 소식과 함께 떠오른 세 남매의 미소가 걱정을 기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채로 서로의 등에 업혀 천진난만해 하던 아이들의 모습은 광화문광장의 바닥분수 보다도, 또 여름비보다도 시원한 스케치거리가 되어 독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으리라 생각되어 흐뭇합니다.



영원으로 기억될 순간의 영상들

5월 10일 시상



장려상 아이의 시선으로 안철민(동아일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문재인 펀드 출자자와의 만남' 행사 도중 자신을 바라 보는 어린아이와 눈을 맞추며 웃고 있다.



장려상 수요집회 방문한 美시장 남정탁(세계일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순 할머니가 미국 최초로 기념비를 세운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시 제임스 로튼도 시장(왼쪽)에게 비옷을 건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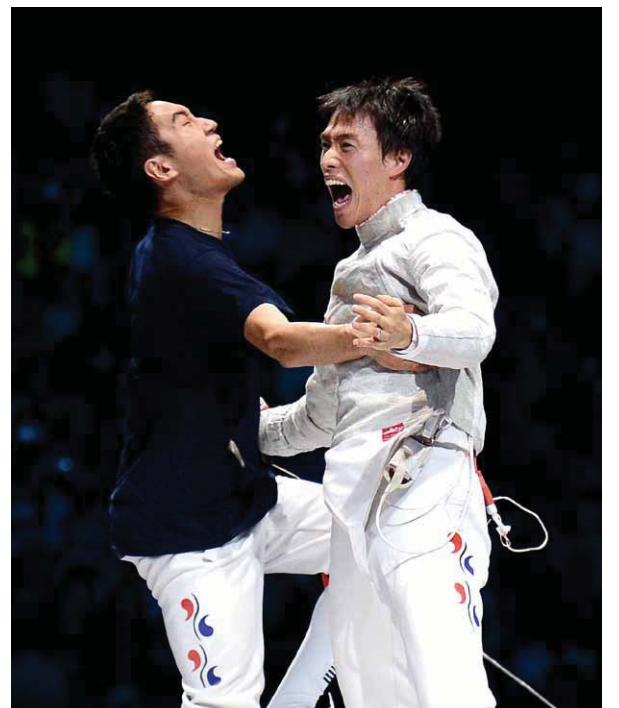
장려상 아쉬운 장미란 선수 박경모(동아일보)

2012 런던올림픽 역도경기에서 출전한 장미란이 4위로 경기를 마친 후 바벨을 어루만지며 아쉬워하고 있다.



장려상 장애인의 야구장 나들이 강영조(스포츠서울)

프로야구 SK와 두산의 경기에서 앞서 장애인 최수용씨(41세)가 시구를 하고 있다.



장려상 100번째 금메달 환호 이제원(세계일보)

런던올림픽 펜싱 사브르 남자단체전 결승에서 원우영 선수(오른쪽)가 금메달을 확정지은 뒤 김정환 선수와 함께 환호하고 있다.



장려상 기분이 어때 박동욱(뉴스시스)

부처님 오신 날을 보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동자승 삭발 및 수계 식'에서 한 동자승이 다른 동자승의 삭발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장려상 눈물...16년만의 금메달 전수영(연합뉴스)

2012 런던올림픽 여자 유도 52kg급에서 북한에 첫 금메달을 안겨준 안금애선수가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鐵의 여인’ 연사로 소개 지금도 못 잊어

내가 만난 마거릿 대처

문명호 (본회 주필)



1992년 인촌기념관에서 필자(오른쪽)가 마거릿 대처 전 총리를 맞아 얘기하고 있다.

지난 4월 8일 영면한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87세)에 대해선 생애와 업적 그리고 그의 철학 등 많은 얘기들이 전 세계 미디어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여기서 필자는 이미 알려진 얘기 말고 직접 만나 본 잘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취재 뒷얘기들을 에피소드 삼아 전하려 한다.

백악관 브리핑때 첫 대면

필자가 대처총리를 처음 본 것은 1981~85년 동아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백악관과 의회를 출입하며 취재활동을 할 때다. 아마도 이 5년간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가장 호흡이 잘 맞았고 친분이 두터웠던 외국 지도자는 단연 대처 총리였을 것이다. 이 두 지도자야말로 ‘별들의 전쟁’ (Star Wars) 등 대소련 강경책으로 냉전을 무너뜨린 주역이었다.

1983년 회담을 마친 미·영 두 정상은 백악관 로즈 가든에 함께 나와 기다리고 있던 2백여 명이 넘는 보도진들 앞에 나란히 섰다. 기자는 항상 현장을 뛰어다니다 보니 필자 역시 보도진 중에 끼어 있었다. 그런데 기자들 앞에 나란히 선 두 지도자의 모습을 보며 필자는 두 유명한 주연 배우들을 보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사실 레이건은 정치인이 되기 전 할리우드의 미남 배우였고 대처 총리도 레이건 못지않은 미모였다. 레이건은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의 표현대로 “레이건대통령의 얼굴만 보아도 마음이 안정된다”는 유머와 위트, 미소가 넘치는 인물이었고 보수당의 상징 색인 파란 옷을 자주 입는 대처에게는 우아한 매력이 있었다.

두 번째로 놀란 것은 대처의 연설이었다. ‘뛰어난 커뮤니케이터’란 말을 들던 레이건은 회담 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하고 설명을 대처에게 넘겼다. 대처는 아무런 메모지도 없이 회담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했는데 중요한 대목에서 그 음성과 억양은 좀 더 높게 올라가고 명확하고 필요할 때 푹푹 끊는 말엔 강한 힘과 설득력이 있었다.

아깝게 놓친 특종사진

대처의 연설에 정말 탄복한 것은 1985년 2월 레이건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친 후 미 의회를 방문해 연설할 때였다. 상원 본회의장 프레스석은 의원들이 앉은 정면을 향해 2층 발코니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서 회의장이 다 내려다 보였다. 연단의 연사나 발언자의 뒷모습도 다 보였다. 그런데 이 대처의 연설 때 필자는 다시 건질 수 없는 특종을 놓치고 말았다. 상원 프레스 갤러리를 통해 2층 기자석으로 들어가 앉아 본회의장을 내려다보니 대처 총리의 옆모습과 회의장 전체가 눈에 잘 들어 왔다.

대처총리의 연설 내용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신념과 지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필자도 열심히 대처의 연설을 메모했다. 보통 외국의 유명한 정치 지도자들이 미 의회에서 연설하게 되면 미리 준비한 연설 원고를 읽는 것이었는데 대처는 준비한 원고도 없이 거의 한 시간동안 연설을 했다. 한 치도 흐트러짐이 없는 명연설이

었다.

그런데 연단에 서서 한 30분쯤 연설을 이어 나가던 대처총리에게 재미있는 일이 눈에 띄었다. 대처는 한 쪽 발을 신고 있던 하이힐에서 빠더니 맨발(물론 스타킹을 신은 발이다)을 하이힐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닌가. 한 30분 그대로 서서 연설을 하니 발이 불편했던 모양이다.

이 모습이 연단에 가려 정면에서 중계하던 TV 카메라엔 잡히지 않았으나 연단 뒷자리 2층에선 푹푹히 볼 수 있었다. 그야말로 기막힌 특종 사진 거리였다. 그런데 보통 의회 청문회 취재 때처럼 카메라를 갖고 오지 않은 것이다. 이런 낭패가 있을 수 없었다. 대처는 한참이나 하이힐을 벗고 한쪽 맨발을 구두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발을 동동 굴렀으나 그 기막힌 특종 사진을 눈앞에 두고도 놓칠 수밖에 없었다. (이 장면을 다른 미국 기자들이 놓친 것은 기자들이 프레스 갤러리의 자기 회사 부스에 앉아 TV 중계를 보며 기사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뒤로 필자는 어디를 취재 가나 카메라를 반드시 갖고 다녔다.

서울 초청 행사 주무 맡아

필자가 귀국 후 대처총리를 서울에서 다시 만난 것은 1992년 9월 동아일보와 인촌기념회, 고려대학교가 인촌기념 강

좌 연사로 대처 전 총리를 초청한 때였다. 그 전 어느 날 일민 김상만 명예회장께서 필자를 부르시더니 대처 초청 행사를 맡아 달라고 말씀하셨다. 처음부터 다른 곳에서 맡았기 때문에 일정상 불과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었다. 일민 회장께서 필자가 1990년 3월 동아일보 창간 70주년 기념 산타 바바라 (미국 캘리포니아) 국제 학술회의를 맡아 행사를 잘 치른 일을 보았던 것이다. 그 시간부터 필자는 그야말로 ‘비상’에 들어갔다. 우선 강연장인 롯데호텔 크리스털 볼룸부터 확인 점검했다. 그리고 런던의 대처총리 보좌관들과의 연락이 연일 이어졌다.

서울에서의 숙소와 한국 측 경호문제, 강연장소와 만찬장, 초청손님, 이동차량 등, 눈 코 뜰 사이가 없는 시간이었다. 런던에선 미처 생각지도 않은 문의까지 왔다. 롯데 호텔 강연장 연단의 배경 색깔이 무엇인가? 대처총리가 연단에 올라갈 때 높이는 얼마나 되나? 연단에 오를 때 누가 부축을 해주는가? 등. 당연한 문의였다. 연단 배경 색깔은 의상과의 색깔 조화를 맞추기 위한 것이고 연단 높이와 부축은 하이힐을 신어도 안전한지를 사전에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심지어 대처 도착 한 주전 서울로 날아 온 경호담당 런던 경시청 간부의 만찬장의 프로판가스 안전문제, 연회 음식을 데우는 곳과 만찬장과의

거리 측정 등 안전을 위한 그 세밀하고 완벽한 체크는 놀라울 정도였다.

소개 멘트에 고마움 표시

대처 총리의 인촌기념 강좌날, 사회를 맡은 필자는 대처를 연단 위로 부축해 안내하곤 크리스털 볼룸을 꼭 메운 1천 4백여 명의 청중에게 대처를 소개했다. “제가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을 위해 로즈 가든으로 나온 대처 총리를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저렇게 아름다운 분이 배우가 되었다면 인기가 대단했을 텐데 하고 느꼈습니다.” 그러자 연단의 대처는 미소를 지으며 필자를 향해 “친절한 인사 말 감사합니다”고 답변했다. 필자는 그 때 “아무리 철의 여인이라도 아름답다는 말은 누구나 좋아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날 대처 전 총리는 ‘아시아의 경제적 정치적 미래’라는 제목으로 “아시아가 번영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법의 지배”라고 강조하고 따라서 “꾸준히 민주주의를 신장시켜야 경제적 번영이 옵니다”고 연설했다.

워싱턴에서 대처총리를 처음 만나 본 순간부터 필자는 여성이 어떻게 저 강철 같은 신념과 의지를 갖게 됐을까 하는 놀라움 뿐이었다. 그러나 그 해답은 멀리 있지 않았다. 그 신념은 대처가 1979년 선거에서 승리해 총리가 되었을 때 한 말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미 아버지 알프레드 로버츠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의 가족들이 열심히 믿었던 자립 근면 노력 등 감리교 정신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랜덤의 한 식료품상에서 감리교회의 장로, 시의회 의원 그리고 그랜덤의 시장까지 된 알프레드는 딸에게 항상 “집단에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내가 할 일은 네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가치관을 심어 주었다. 바로 이 가치관이 대처총리가 탄광노조의 파업을 진압하고 ‘철의 여인’이란 별명을 얻게 된 토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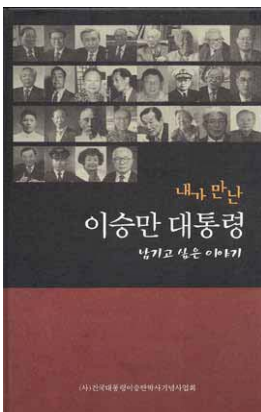
“의존적 사회에서 자립적 사회로, 해달라는 국민에서 스스로하는 국민으로”가 본질인 ‘대처리즘’에 대해 대처는 직접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정권을 맡았을 때 영국은 쇠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영국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특별한 정책을 실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용기 있는 기업이 정신을 본보기로 삼았으며 흐트러졌던 법과 질서를 바로 잡았습니다. 부당하게 운영되던 노동조합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고승제 저 ‘마거릿 대처’에서). 대처총리에 대해선 재임 중 그의 과감한 복지축소, 공기업 민영화, 교육개혁 정책 등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1991년 대처가 11년간 연임한 총리직에서 물러난 후, 50명의 저명한 영국 역사학자들은 대처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가장 위대한 총리로 선정했다. 이렇게 ‘영국 병’을 회생시킨 ‘철의 여인’은 지난 4월 17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각국 지도자들이 참석한 성대한 장례식을 갖고 왕립 웰시 안식원의 부군 곁에 묻혔다.

본회 회우등 집필 ‘내가 만난 이승만 대통령’ 출간

‘내가 만난 이승만 대통령-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 이기수회장이 발행한 이 책은 이 박사를 만난 29명이 공동 집필했다.

대한언론인회 제재형 고문과 지갑중 원로회 우도 집필진으로 참여한 이 책은 이승만대통령의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면모를 정리해 후대에 넘겨줌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건국대통령의 참모습을 알리고 후학들에게 독립운동가이



자 건국대통령인 이승만박사의 진정한 모습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것이다.

제재형 고문은 이 책에 ‘언론자유는 완전히 보장돼야 한다’로, 지갑중 원로회우는 ‘미국가 시는데 이발할 시간도 없으셨습니까?’라는 글을 기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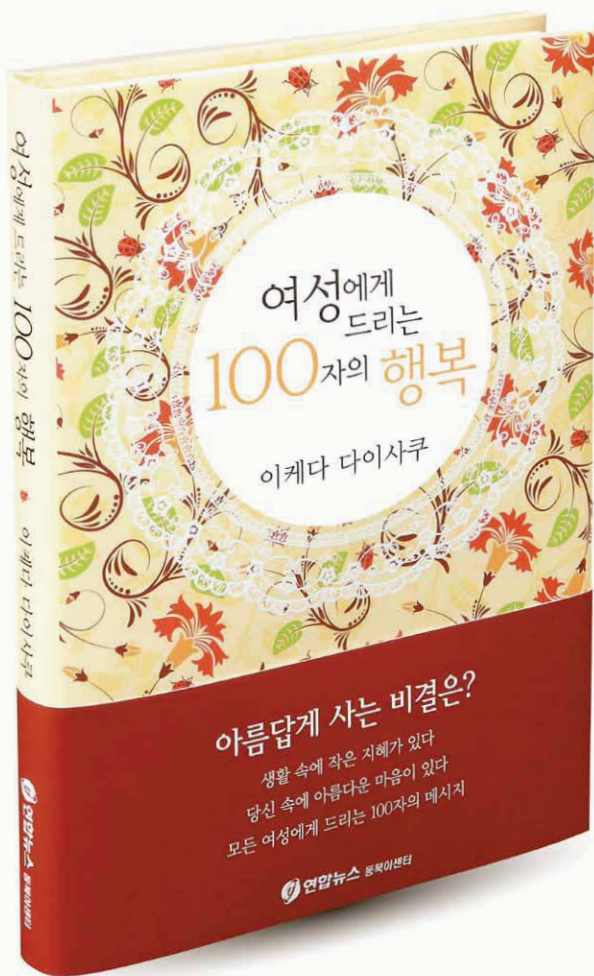
필진 중에는 이상재 임병직 문봉제 손원일 김정열 김점곤 신현확 백영훈 씨도 보인다.

신국판 463면·값 3만원

여성에게 드리는 100자의 행복

전국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
베스트셀러 선정

아름답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일상에서 전혀 올린 반짝반짝 빛나는 삶의 지혜
모든 여성을 행복하게 만드는 특별한 메시지



“여성의 아름다움이란
외모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열심히 살아가는 삶,
자기만의 목표를 찾아 한 걸음씩 전진하는 삶이야말로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아름다움이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멋진 연애와 사랑을 꿈꾼다면,
올곧게 살아가고 싶다면,
진정한 자신을 찾아내 부지런히 연마해야 한다.”

이케다 다이사쿠 지음 / 값 10,000원 / 184쪽

추천사

“자신에게 당당하면서 자녀에게는 멘토로
서, 남편에게는 꿈을 만들어 가는 파트너로
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신을 성장시키고
싶은 워킹맘들에게 추천한다.”

이수연 한국워킹맘연구소장

“여성뿐만 아니라 현대의 모든 ‘시시포스’
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인생이라는
바위를 밀어 올리다 만나는 시원한 바람을
이 책에서 느끼기 바란다.”

고민정 KBS 아나운서

“때로는 많은 내용을 가르치기보다 적절한
빼기가 더 중요하다. 이 책에는 잡다한 지식
도, 어려운 용어도 없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
한 것만 깔끔하게 들려준다.”

‘뽀로로 아빠’ 김일호 오콘 대표

쉬엄쉬엄 북한산 둘레길 ... 신록에 물들다

꽃보다 아름다운 신록의 계절 오월, 모든 것 내려놓고 북한산 둘레길을 쉬엄쉬엄 걷다보면 심신에 활력이 절로 솟는다. 북한산과 도봉산 자락의 셋길을 잇는 둘레길 71.8km가 2011년 6월 마무리 됐다. 흙길과 숲길, 물길과 마을길 등 산책로의 형태에 따라 21개 구간으로 나뉘었다. 제8구간 '구름정원길' 탐방기와 함께 북한산 둘레길 21개 구간의 코스경로와 거리, 소요시간, 주요 볼거리, 난이도를 소개한다.

서울 서쪽 동네 '구름정원길'

“힐링이 별 건가, 숲길 걸으며 맑은 공기 마시고 여유를 누리면 그게 힐링이지”

“힘들지 않지, 돈 안 들지, 젊은이들 눈치 안 봐도 되지, 늙은이들을 넉넉하게 받아주는 곳은 둘레길 밖에 없단니까”

은퇴자들이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며 주고받은 대화다. 겨우내 움츠렸던 심신의 주름살을 펴 걷 이름도 고운 '구름정원길'을 최근 걸었다. 서울의 서쪽 동네를 넘나드는 제8구간 구름정원길은 진관동 생태다리 앞에서 북한산생태공원 상단까지 4.9km. 3호선 구과발역에서 버스를 타고 하나고등학교에서 내려야 되지만 내친 김에 그냥 걸었다. 둘레길 들머리에 접어들자 세종의 서자 화의군(和義君) 묘역이 발길을 잡는다. 세조가 권력을 찬탈한 뒤 단종 복위사건에 연루되어 전라도 금산(지금은 충남)으로 유배되었다가 사사된 비운의 왕족이다. 학문에 조예가 깊어 세종의 한글창제에 참여했으나 업적에 비해 묘는 작고 초라하다. 그 아래 두 아들과 증손자가 묻혀있다.

평지에서 산으로 접어드는 길은 급경사는 아니라도 가파르다. 숨을 고르며 천천히 오른다. 흙길을 걷는 발바닥의 감촉은 부드럽고 솔숲과 잣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결은 상큼하고 향긋하다. 둘레길 노면은 잘 정비되어 스틱을 짚지 않아도 된다. 간편한 복장에 모자를 눌러 쓰고 물통하나 들고 가면 그만이다. 기자촌전망대를 지나 쉼터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표지판에 새겨 놓은 이해인의 시를 감상하는 여유를 누린다. '좋아하면 할수록 산은 조금씩 더 내 안에서 크고 있다'고 노래한다.

구름정원길은 선림사와 불광중학교 부근에서 주택가 사이를 거쳐 다시 둘레길로 이어지다 보니 부작용도 드러났다. 주말이면 주변 골목에 무단 주차하고, 쓰레기와 담배꽂이를 버리는 몰지각한 행위로 주민들의 민원이 잦다고 한다. 등산로 주변에는 '애완동물을 데려와선 안 됩니다', '산악자전거 이용을 금합니다'라는 풋말이 주민들의 불편한 심기를 짐작케 한다. 그런가하면 집게와 비닐봉지를 들고 산의 쓰레기를 수거해 내려오는 참 착한 둘레길 순례자도 눈에 띄어 대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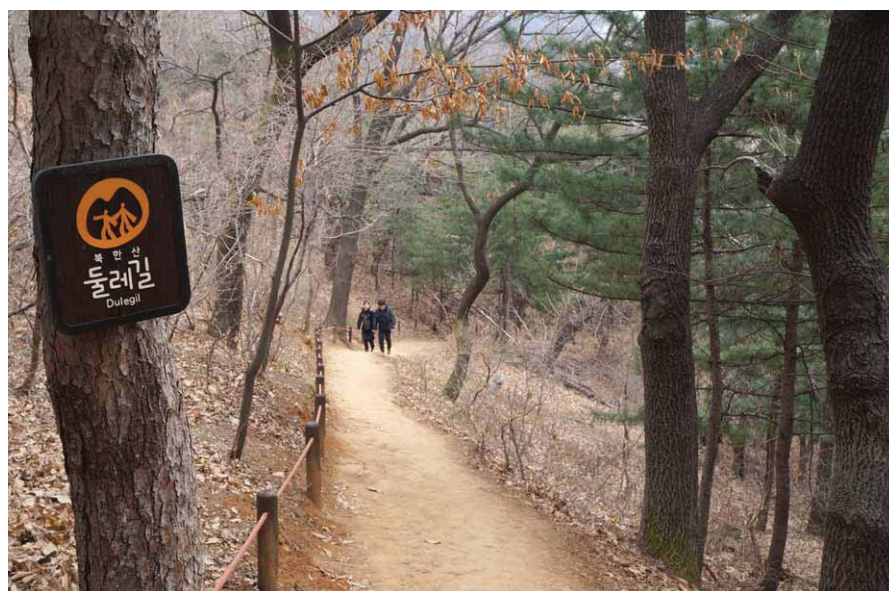
구름정원길의 하이라이트는 구기터널 상단지역의 계곡을 가로지르는 60m 길이의 스카이워크 데크로드.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하늘전망대에 오르면 서울의 서쪽 도심이 펼쳐진다. 북한산생태공원까지 느릿느릿 2시간 30분 정도 걸렸고, 길은 불광동 먹자골목으로 이어진다. 둘레길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느리게 걷는 게 묘미다. 정상을 향해 숨 가쁘게 오를 필요도 없고 갈 수 있는 만큼 걸으면 되는 안



이규섭

·본보 편집위원
·칼럼니스트



둘레길 8구간 '구름정원길'



진관동 생태다리 옆 세종의 서자 화의군 묘역.

분지쪽의 길이다. 분수를 모른 채 삶의 정상을 향해 옆길도 살피지 않고 걷다가 낙마하거나, 자리보전을 위해 안간힘 쓰는 사람들에게겐 삶의 지혜를 던져주는 길이다.

21개 구간 보는 맛, 걷는 맛

▶1구간 소나무숲길 ㉸ 우이 우이령길 입구에서 솔밭근린공원 상단부까지 3.1km. 약 1시간 30분. 우이계곡과 손병희 선생 묘역, 봉황각 등 명소. 난이도 하.

▶2구간 순례길 ㉸ 솔밭근린공원 상단에서 이준 열사 묘역 입구까지 2.3km. 약 1시간 10분. 12기의 독립유공자 묘역과 섣다리, 계곡과 쉼터 등. 난이도 하

▶3구간 흰구름길 ㉸ 이준 열사 묘역 입구에서 북한산 생태 숲 앞까지 4.1km.

약 2시간. 구름전망대와 화계사 팔레터 등. 난이도 중

▶4구간 솔샘길 ㉸ 북한산 생태 숲 앞에서 정릉주차장까지 2.1km. 약 1시간. 북한산 생태 숲에 작은 꽃길을 따라 야생화 단지. 난이도 하

▶5구간 명상길 ㉸ 정릉 주차장에서 형제봉 입구까지 2.4km. 약 1시간 10분. 형제

봉나무숲, 고려 때 창건된 진관사와 신라 때 창건된 삼천사 등. 난이도 하

▶10구간 내시묘역길 ㉸ 은평구 방배 교육대 앞에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공설묘지까지 3.5km. 약 1시간 45분. 임금을 보좌하던 내시들의 묘역과 전주 이씨 묘역, 경천군 송금물침비, 8m 높이의 투명 발판이 설치된 둘레교 등. 난이도 하

▶11구간 효자길 ㉸ 효자동 공설묘지에서 사기막 골 입구까지 3.3km. 약 1시간 30분. 조선시대 효자 박태성 정려비와 묘, 민속문화를 엿볼 수 있는 굿당, 밤골 등. 난이도 하

▶12구간 충의길 ㉸ 사기막 골 입구에서 교현 우이령길 입구까지 3.7km. 약 1시간 45분. 39번 도로와 나란히 걷는 보도에서 백운대·인수봉·만경대 등. 난이도 중

▶13구간 송추마을길 ㉸ 교현 우이령길 입구에서 원각사 입구까지 5.3km. 약 2시간 40분. 수도권 휴양지로 잘 알려진 송추계곡과 만남. 난이도 하

▶14구간 산너미길 ㉸ 원각사 입구에서 안골계곡까지 2.3km. 약 1시간 10분. 사패산 중턱(해발 552m)을 지나는 가장 힘든 코스. 의정부 시가지와 양주시, 수락산과 천보산 조망. 난이도 상

▶15구간 안골길 ㉸ 안골 계곡에서 회룡탐방지원센터까지 4.7km. 약 2시간 20분. 직동공원과 연결된 가족형 산책코스이며, 사패산으로 오르는 등산로와 연계. 난이도 중

▶16구간 보루길 ㉸ 회룡탐방지원센터에서 원도봉 입구까지 2.9km. 약 1시간 30분. 고구려 유적인 사패산 3보루터와 원심사. 난이도 상

▶17구간 다락원길 ㉸ 원도봉 입구에서 다락원까지 3.1km. 약 1시간 30분.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를 지나는 구간으로 다락원 캠프장, 엄홍길기념관 등. 난이도 하

▶18구간 도봉옛길 ㉸ 다락원에서 무수골까지 3.1km. 약 1시간 30분. 우암 송시열의 바위글씨, 이인신도비, 도봉사·능원사·광륜사 등. 난이도 하

▶19구간 방학동길 ㉸ 무수골에서 정 의공주묘역까지 3.1km. 약 1시간 30분. 전 구간이 숲길로 쌍둥이 전망대와 바가지약수터 등. 난이도 중

▶20구간 왕실묘역길 ㉸ 정의공주묘역에서 우이 우이령길 입구까지 1.6km. 약 45분. 연산군묘와 세종대왕 둘째딸 정의공주묘역, 수령 830년의 방학동 은행나무, 원당샘 등. 난이도 하

▶21구간 우이령길 ㉸ 우이동 우이령길 입구에서 양주시 교현리 우이령길 입구까지 6.8km. 약 3시간 30분.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 탐방예약제 실시 구간. 난이도 중

○예약방법 :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예약(15일 이전부터) 하루 780명 (송추 390명, 우이 390명)

○예약사이트 : (<http://ecotour.knps.or.kr/reservation/Uir.aspx>).

○탐방관리팀 : (02)3279-2814

※인터넷 예약 후 예약확인증과 신분증 반드시 지참. ㉸

봉(해발 462m) 능선 경유, 군사보호 시설로 통제되다 개방된 북악 하늘 길과 연결. 난이도 상

▶6구간 평창마을길 ㉸ 형제봉 입구에서 탕춘대 성암문 입구까지 5km. 약 2시간 30분. 서울시 민속자료3호 보현산 신각, 박종화 가옥 등. 난이도 중

▶7구간 옛성길 ㉸ 탕춘대 성암문 입구에서 북한산 생태공원 상단까지 2.7km. 약 1시간 40분. 둘레길 중 유일하게 성문을 통과하는 구간이며, 보현봉·문수봉·비봉·향로봉·족두리봉 등이 한 눈에 들어오는 전망대. 난이도 중

▶8구간 구름정원길 ㉸ *기사 참조. 난이도 중

▶9구간 마실길 ㉸ 진관 생태다리에서 방배교육대 앞까지 1.5km. 약 45분. 은평구 보호수 수령 150년 느티나무와 은



제57회 '신문의 날' 기념식 박근혜 대통령 참석 축하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제57회 신문인의 날 기념식이 지난 5월 6일 오후 6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 “지금 신문은 도전과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며 “이미 많은 신문사에서 활자매체의 영역을 넘어서 뉴미디어와 결합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오늘 우리 신문이 21세기 지식산업의 견인자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며 “창의형 인재를 길러내고 통섭과 융합의 꽃을 피워내려면 지식과 콘텐츠의 보고인 신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언론인회 후원기 회장과 제재형 고문을 비롯 임원진 전원이 초청돼 한담을 나누었다.

서재필 언론문화상 시상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본회 회우)은 지난 4월 9일 오후 5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제3회 서재필언론문화상을 시상했다.

제3회 서재필언론문화상 수상작으로

언론가 소식

는 채널A의 예능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가 선정돼 이 프로그램을 연출하는 이진민 채널A PD가 상패와 부상을 받았다

‘올해의 민족 언론인’ 배설 선생



재단법인 서재필기념회(이사장 안병훈)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은 구한말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배설(裴說·Bethell·1872~1909·사진) 선생을 ‘올해의 민족 언론인’으로 선정, 지난 4월 9일 오후 5시 프레스센터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헌정식을 가졌다. 배설 선생은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크로니클지의 특별통신원으로 대한제국에 왔다. 이후 양기탁, 신채호 선생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해 항일투쟁의 대변자 역할을 했다.

동아일보 김병관 명예회장 5주기



동아일보사장, 회장,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을 지낸 화정 김병관 명예회장의 5주기 추모식이 지난 3월

25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묘소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추도식에서 김광희 동우회 회장(본회 회우)은 특별히 준비한 추도사를 낭독했다.

한국일보 장기영사주 36주기



한국일보 창간 발행인 백상 장기영사주의 36주기 추모식이 지난 4월 11일 경기 하남시 창우동 묘소에서 열렸다. 사진 : 장재구(가운데) 한국일보미디어그룹 회장이 임직원·유족들과 함께 분향하고 있다.

동아방송 개국 50주년

한국최초의 신문방송겸영 언론사였던 동아방송이 개국50주년을 맞아 4월 25일 오전 11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기념식을 갖고 축하연을 베풀었다.

1963년 처음 전파를 발신한 동아방송은 28년 동안 창의적인 프로그램과 성역없는 보도로 한국방송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미주 YTN FM개국

미주 YTN FM이 출범해 미국에서도 YTN FM 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을수 있게 됐다. 미주 YTN FM은 앞으로 뉴욕을 비롯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7개주요도시로 방송권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김경래 원로회우 회고록 출판기념회



언론인이면서 한국기독교연합운동의 산 증인으로 평생을 봉사해온 김경래(사진·100주년기념재단 상임이사, 전 경향신문편집국장)원로회우의 회고록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출판기념회가 지난 4월 29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선교기념관 2층에서 있었다. 강병훈목사(100주년기념재단 이사장)의 개회기도로 시작된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경향신문 전현직 사우를 비롯,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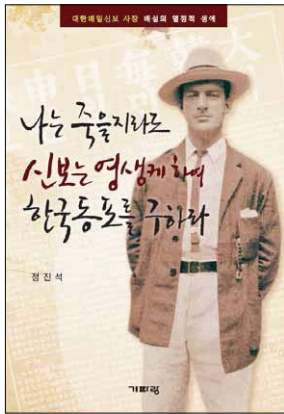
김 원로회우는 현재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재단 사무총장, 상임이사, 유산남기지않기운동 발기인 대표, 북한구원운동 공동의장직을 맡고 있다.

경향신문사우회(회장 김명수·본회 회우)는 이날 김경래 회우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회우들이 펴낸 신간

정진석 명예회우 ‘배설의 생애’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본회 명예회우)는 <대한매일신보>와 영문판 <코리아 데일리 뉴스>를 창간하여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운 영국인 배설(裴說, Ernest Thomas Bethell)의 전기 <나는 죽을지라도 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동포를 구하라>를 출판했다. 정 교수는 1970년대부터 30



민(會)’의 비밀 본부 역할을 맡았다. 또한 국채보상운동의 성금을 모으는 ‘국채보상연금총합소’도 신보사에 설치했다.

저자는 영국의 국립문서보관소, 일본의 외교문서와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서울의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일본공사관-통감부의 방대한 비밀기록을 섭렵하고 교차 대조하여 배설을 둘러싼 영국과 일본의 외교 교섭을 흥미 있게 복원했다. 책은 배설의 죽음을 첫머리에 서술하여 그의 항일 투쟁이 당시 한국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현장감 주는 장면을 묘사했다. 배설의 출생, 성장, 일본에 건너온 후의 활동 등을 세밀하게 추적하면서 그가 항일전선에 나선 경위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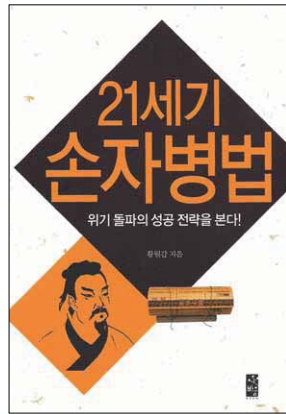
배설이 일제의 침략을 강력히 비판하고 국내외에 널리 폭로하여 민족진영의 저항이 커지자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외교력과 무력을 총동원하여 배설의 추방과 신보의 폐간을 영국에 강력히 요구했다. 영-일 두 나라의 외교교섭과 배설의 두 차례 재판 과정에서는 많은 일화와 역사 드라마 못지않은 극적인 장면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

황원갑회우 ‘21세기 손자병법’

중견소설가이자 역사연구가인 황원갑(黃源甲)회우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이 시의적절하게 활용할수 있는 <21세기 손자병법>을 펴냈다. <21세기 손자병법>은 저자가 <손자병법>을 인간학과 경영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재해석한 책이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두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엮여져 있다. 하나는 <손자병법>의 원문과 해석이 충실하게 소개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손자병법>의 방편을 잘 활용해 빛나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저자가 이 책에서 펼쳐내고 있는 역사적 사례의 경우 치밀한 고증에 바탕을 두고 있어 읽는 재미도 아주 쏠쏠하다.

최근 들어서는 <손자병법>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담은 병법서로서의 역할보다는 국가경영, 기업경영, 나아가 인간경영에 대한 경영



서로서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만큼 이제 <손자병법>에 대한 해석과 응용도 무력전쟁에 맞추는 것보다는 경제전쟁에 맞추는 것이 더더욱 중요해졌다.

그런 점에서 <손자병법>의 원문과 해석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사례도 결집된 <21세기 손자병법>의 출간은 나름대로 의미가 깊다.

실제로 이 책은 ‘적의 힘을 분산시켜 수세로 몰아넣으라’ ‘때로는 정공법을, 때로는 기습작전을 펼치라’ ‘방어는 조용히, 공격은 신속히 하라’ ‘정보를 증시하고 상황변화에 임기응변할줄 알라’ 등과 같은 2,500여년전 <손자병법>의 가르침이 지금 이 시대에도 전혀 낯설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바로 그와 같은 <손자병법>의 가르침이 야말로 오늘날 21세기 기업경영과 인간경영에 꼭 필수 불가결한 전략과 전술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4]

양기탁, 박은식, 신채호와 같은 우국의 논객들이 침략에 붓으로 맞서 싸우는 한편으로 항일 비밀결사 ‘신민회(新

배설은 37세 젊은 나이로 죽어 서울 양화진의 외국인 묘지에 잠들어 있다. 일제는 장지연이 지은 배설의 묘비 비

문을 깎아 없앴으나 1964년에 편집인협회가 이를 복원했다. [4]

회우동정 가나다순

‘청소년 눈높이 통일교실’ 특강



곽찬호(민주평통광진구협의회 사무국장)원로회우= 4월 12일 서울 광진구 자양고 학생 400명 대상 ‘청소년이 알아야 할 통일문제 이해’ 특강.

재미(在美) 활동 중 일시귀국



김진섭(전 경향신문심의실장)원로회우= 대한언론인회 최고령 회우인 김진섭 원로회우(1918년생)가 지난 4월초 미국에서 일시 귀국했다.

서재필언론문화상 심사



남시욱(전 문화일보사장·사진上), 오건환(전 KBS 파리총국장·사진中), 현소환(전 YTN사장·사진下)회우= 재단법인 서재필기념회(이사장 안병훈)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이 시상한 제3회 서재필언론문화상과 2013 민족언론인 선정 심사위원으로 활약.



자메이카기자들과 인터뷰



박기병(6·25 참전언론인회 회장·전 기자협회 회장)이사= 지난 4월 24일 11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로비에서 한국을 방문한 자메이카 옵서버(The Jamaica Observer)지의 자동차·연예 오락 에디터인 바링턴 보니토(Brain Barrington Bonitto)기자와 6·25 참전언론인회와 관련해 인터뷰를 했다.

북한동포 주제 세미나 개최



박선영(물망초이사장·전 국회의원)회우= 국회의원 권포림과 물망초, 아시아인권연맹이 5월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8층 배움터에서 주관하는 ‘북한동포 왜 작아졌나’ 주제의 세미나에

서 물망초이사장 자격으로 개회사를 한다.

‘보스턴 테러문제’ 대담



여영무(뉴스엔피플 닷컴 대표·전 동아일보 논설위원)논설위원= 지난 4월 18일 오후 1시 30분, Y뉴스, TV조선, 채널A에서 보스턴 테러문제와 관련 대담. 3월 13일엔 채널A에서 ‘안보위기-현재와 월남패망 때 비교’ 대담.

‘5·16은 혁명인가 정변인가’ 세미나



이도형(한국논단 발행인)원로회우= 5월 16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재단법인 5·16 민족상 후원으로 ‘5·16은 혁명인가 정변인가’ 주제로 세미나(주제 발표 조갑제·조갑제 닷컴 대표)를 개최한다.

장영실과학문화상 시상



제재형(한국일보 사우회 회장)고문= 사단법인 과학선현 장영실선생기념사업회 상임고문인 제회우는 지난 4월 1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거행된 제15회 장영실국제과학문화상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6·25격전 62주년 기념식 주관



지갑중(유엔한국참전국협회 회장)원로회우= 영연방4개국의 6·25 참전용사 224명의 방한을 맞아 옛 격전지 임진강 설마리(4월23일) 가평(4월24일)에서 각각 격전 62주년 기념식과 추도식을 주관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들은 장학금을 마련, 가평지역 중고학생 80명에게 전달했다.

K 1TV '아웅산 그후 30년' 출연



최재욱(전 환경부장관·전 국회의원)회우= 5월 11일(토) 오후 8시 방영 예정인 KBS 1 TV 영상다큐 '아웅산 그후 30년'에 출연한다.

회우가족동정



한독약품은 이스라엘 테바사와 합작 설립한 한독테바의 신임사장에 홍유석(사진·홍원기 회장 장남)전 한국릴리 사장을 선임했다. 홍 사장은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하고

홍원기 회장 장남 한독테바 사장에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MBA를 수료했다. 1992년 일라이릴리에 입사해 미국 본사에서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다 1995년 한국으로 돌아와 신제품 마케팅, 영업 마케팅 총괄 상무 등을 거쳐 2007년부터 한국릴리 사장을 맡아왔다.

▶ 회원수첩 정정 합니다 ◀

- 정기정 부회장은 (경력난)현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으로 정정
- 김진배 회우= 휴대전화 010-3769-3080
- 손위수 회우= 마포구 상암동 1736 마포상암월드컵파크 1016-1201
- 신우식 고문= 휴대전화 010-5247-0783

사우회 소식

평생회비제도 호응도 높아

경향신문

경향신문 사우회(회장 김명수·본회 회우)는 이 사회의 결의에 따라 평생회비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에 의하면 매년납부하고 있는 회비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 평생회비 20만원(계좌번호 외환은행 621-005019-357 김명수)을 내도록 했다. 경향사우회 소식에 따르면 이 제도에 대한 호응도가 매우 높아 사우회가 더욱 활기 있게 운영 되고 있다고.

동우회보 31호 발간

동아일보

동아일보 사우회(회장 김광희·본회 회우)는 지난 4월 17일자로 동우회보 32호를 발간했다. 타블로이드 16면으로 발행된 이번호에는 2013 춘계단체대회 겸 임시총회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하여 동우만평, 동아리연합 단합대회, 동아마라톤, 산클럽 시산제, 클래식 음악 감상회 소식 등 읽을거리가 다양하다.

특히 최창봉(본회 원로회우)- 안평선(본회 이사) 대담 ‘동아방송 개국 50주년 그때를 말한다’가 돋보인다. 또한 이명동(본회 원로회우)- 김성남(동아일보 출판사진부장)의 선후배 대화, 고 김병관 명예회장추도사, 이시현 이경식 본회 회우의 글도 보인다.

한편 동우회 사무실을 스마트오피스로 말끔히 장식, 동우들에게 쾌적한 친목공간과 여가 활용시간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동우회는 또 1,500여 회원들의 원활한 정보 관리를 위해 사무실용

컴퓨터를 최신 고성능으로 교체했다. 이밖에도 일반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8대나 비치돼 있다.

사우회보 132호 발간

KBS

KBS사우회(회장 정근춘)는 지난 4월 1일자로 사우회보 132호를 발간했다. 18대 첫 이사회(제87차)소식을 비롯, 봄철 친목 행사와 여맥회의 올진원전 방문소식등이 실려 있다. 사우회 친목 행사로는 낚시(4월 23일), 문화유적탐방(4월 26일)에 이어 5월에는 사진(5월 2일), 바둑(5월 10일), 등산(5월 31일) 모임이 열린다.

사우회보 21호 발행

CBS

CBS사우회(회장 조준택)는 지난 4월 1일자로 사우회보 21호를 발행했다. 이번호에는 CBS사우회 제14차 정기총회 소식을 비롯, 3면에 실린 본회 권영국 회우의 글 ‘우스꽝스런 실수로 빙고호텔 갈 뻔 한 이야기’ (제1부)가 화제다.

사우회보 제26호 발행

SBS

SBS사우회(회장 임형두)는 지난 4월 1일자로 사우회보 26호를 발행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발탁된 이남기 사우 소식을 비롯, 사우들의 힐링캠프(1면 머리기사), 2013년도 정기총회, 우석호사우 별세 소식과 사우회 원로모임 등 다양한 소식이 실렸다.

5월 건강포럼 11일 열립니다

5월 건강포럼은 11일 노년이면 모두 관심을 갖는 ‘치매의 짝을 퇴치하라’는 주제로 이윤수 피부 비노기과에서 열린다. 연사는 희망건강관리교육원의 김용범 원장으로 KBS-1TV와 CBS에서 건강강사로 활약한바 있다. 치매에 노출돼있는 노년이 알아둬야 할 치매 관련 강연에 많은 참여있길 바란다.

한편 지난달 20일 열린 토요일건강포럼에서 윤창옥 내과전문의의 ‘건강검진 효율적으로 하기’ 강연은 참석한 회원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날도 역시 옛 기자시절 얘기로 좌중을 사로잡았던 오전식 원로회우가 구수한 얘기와 함께 뒤풀이 맥주와 치킨값을 전액 찬조했다.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가나다순·괄호안 납입연도)

김태선(12, 13)	송호창(12)	이태자(13)	(4월 25일 현재)
김광섭(13)	안건혁(13)	이홍우(13)	
김상수(13)	안홍렬(12,13)	최종철(11)	
김한봉(12,13)	윤재홍(13)		
노영태(13)	윤주영(12,13)		
민병문(13)	이용호(12,13)		
박기병(13)	이철영(13)		

발전기금 찬조

구만완(전내외경제 교정부장)원로회우= 지난 4월 15일 본회 발전기금으로 20만 원을 찬조했다.

▶ 회우경조사 ◀

부음
김태선 회우=4월 6일 부인상. 발인
4월 8일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洪元基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광고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www.kra.co.kr

1등 사회공헌기업, 한국마사회의 행복한 달리기

KRA 한국마사회는 매년 **1조7천억** 원을
국가와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KRA는 국가 및 지방 재정에 기여합니다!

- ▶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재정 기여 _ **1조1,189억원**
- ▶ 농특세, 법인세 등 국가재정 기여 _ **3,34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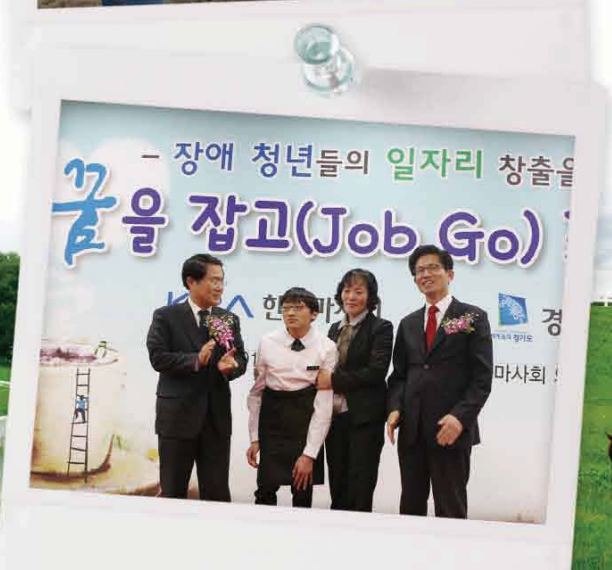
KRA는 축산농가 및 농어민에게 활력을 전합니다!

- ▶ 축산농가 발전기금 _ **1,835억원** 출연
- ▶ 농어민 복지증진사업 _ **109억원** 출연
- ▶ 농어민자녀 장학사업 _ **162억원** 출연
- ▶ 농축산 홍보 및 마사진흥사업 _ **187억원** 출연

KRA는 이웃사랑 나눔실천으로 희망을 키웁니다!

- ▶ 사회공헌 기부사업 _ **205억원**
 - 정서행동장애 치유를 위한 승마힐링센터 2개소 운영
 - 장애 청소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리스타 취업교육센터 5개소 운영
 - 지적장애 청소년 야간교육센터 6개소 운영
 - 매년 전국 농어촌소재 지역 복지시설 및 단체에 승합차 200대 지원
(2004~2012년까지 총 750대 지원)

KRA 1등 사회공헌기업
한국마사회



59th 창립 59주년 기념

할인도 혜택도 beyond Best! KDB산업은행 체크카드 출시



편리한 금융서비스	• 시중은행 자동화기기 출금/이체 수수료 면제 (KDBdirect/HiAccount 가입시)	다양한 할인혜택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할인 • 전국 음식점(BC카드 가맹점), 주유, 편의점, 커피, 영화 등 할인
----------------------	---	---------------------	---

정직한 금리, 착한 대출 재형저축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은행방문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인터넷으로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어디에서나
수수료없이 입·출금하세요

재형저축도 beyond Best! KDB 재형저축 탄생

일자리에서 쌓은 재형저축 자금 새 일자리를 위한 미래창조금융에 사용됩니다

- **파이어나어 프로그램(1조원 이상)**
미래선도산업 분야의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 **테크노 बैं킹(5,000억원 이상)**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기업 금융지원

- **KDB재형저축만의 특징**
기본금리 : KDBdirect/재형저축 4.5%(세전),
KDBdream/재형저축 4.4%(세전)
우대조건 : 급여 이체만으로 0.1% 우대금리 제공
(전월중 건별 50만원 이상 입금시)
적용금리 : 최초 4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적용



KDBdream/재형저축
(급여이체시 우대금리, 창구전용)

최고 연 4.50%(세전)

KDBdirect/재형저축
(급여이체시 우대금리, 온라인전용)

최고 연 4.60%(세전)



※고객센터 1588-1500 www.KDB.co.kr

※한국산업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3-03-038호(2013.03.19)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상품안내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 이율은 '13.3.21 현재 적용이율(세전)이며, 시장금리동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Pioneer Bank beyond Best

KDB산업은행